2022 문화도시조성사업

GIMHAE CULTURE CITY 문화도시김해

도시문화 실험실

2022 도시문화실험실 결과자료집

2022
도시문화실험실
결과자료집

2022문화도시조성사업 도시문화실험실은
2곳의 주민자치회와 39명의 시민연구원이
주민자치형 2개의 실험실과 행정협치형
1개의 실험실, 시민의제발굴형 5개의 실험실
총 8개의 실험실에서 활동하며 8개의 의미있는
실험프로젝트를 실행했다.

GIMHAE CULTURE CITY 문화도시김해

contents

01

도시문화실험실 사업 안내 008

02

주민자치형 012

불암동 실험실 014

진례면 실험실 020

03

행정협치형 026

04

시민의제발굴형 034

청소년 실험실 036

갈 곳 없는 청소년들과 그들을 향한 불편한 시선

이주배경 실험실 042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겪는 학교생활의 어려움

재활용 실험실 048

재활용으로 이어지지 않는 잘못된 분리배출

길고양이 실험실 054

길고양이 문제로 인한 사람들 간의 갈등

횡단보도 실험실 060

횡단보도에서 겪는 위험과 불편

05

2022 도시문화실험실을 마무리하며 066

프로젝트 매니저 한마디 066

담당자 한마디 069

ABOUT

도시문화실험실

추진과정

2020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운영주체
책임연구원 & 시민연구원
운영방식
권역별 실험실 5개 운영

2021
문화도시 조성사업

운영주체
책임연구원 & 시민연구원
운영방식
권역별 실험실 7개 운영
의제별 실험실 3개 운영

2022
문화도시 조성사업

운영주체
시민연구원
보조지원
프로젝트매니저, 코디네이터,
퍼실리테이터
운영방식
주민자치형 실험실 2개 운영
행정협치형 실험실 1개 운영
시민의제발굴형 실험실 5개 운영

2022 도시문화실험실 사업 설명

일상을 관찰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도시문화실험실>

“시민이 문제를 찾고, 시민이 해답을 내다!”

지역 곳곳에 당면한 문제를 **시민이 주체가 되어** 직접 정의하고 문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절차와 재원을 지원해 줌으로써,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한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프로젝트**

사업목적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이루어진 시민연구원이 협업하여 지역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해나감으로써 **시민 주체적인 도시문화 환경 조성**

2022 도시문화실험실

3가지 유형의 실험실 총 8개 운영

주민자치형	행정협치형	시민의제발굴형
불암동	여성안심귀갓길	청소년
진례면		이주배경
		재활용
		길고양이
		횡단보도

ABOUT
도시문화실험실

운영주체 및 주요역할

시민연구원 : 의제별 실험프로젝트 발굴 및 도시문화활동의 주체

보조전문인력 지원

퍼실리테이터 지원

시민들의 논의가 실제 지역 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디자인씽킹 방법론을 적용

코디네이터 지원

시민연구원이 실험프로젝트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코디네이터를 모든 실험실에 지원

프로젝트매니저(PM) 협업

사업의 기획, 운영 및 다양한 주체들의 연결과 관리를 위해 역량을 갖춘 전문가를 PM으로 지정, 협업 체계를 구축

진행과정

01
의제 발굴
김해 시민이 직접
지역의 문제를 의제로 발굴

02
연구원 모집
발굴된 의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시민연구원 모집

03
워크숍 진행
· 퍼실리테이터와 함께 디자인씽킹 기법을 활용하여 실험실 별 총 6회 이상 진행
· 워크숍을 통해 의제공감, 문제정의 실험 아이디어 도출, 사업계획서 작성

04
예산 자문
예산자문을 통한
실험비용 합의 및 결정

05
중간공유회
진행할 실험프로젝트에 대한
공유 및 네트워킹

06
기획회의
실험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실험실 별 최종 점검

07
실험프로젝트 실행
실험비용 교부 및 프로젝트 실행

08
평가회의
실험프로젝트 완료에 따른 실험실 별
자체평가 진행 및 사업 총평

09
결과공유회
진행된 실험프로젝트에 대한
공유 및 네트워킹

주민자치형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주민참여예산사업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

- **불암동 실험실**
  서낙동 강변 로즈골드 정비 및 강변뷰 확보 프로젝트
- **진례면 실험실**
  공장지대 중심의 (주민)모니터링단 운영

불암동
실험실

불암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회 워크숍 "우리 동네 현안 '시민 육감도'로 진단해요"

김해시 불암동 주민들은 올해 4월과 5월 4회에 걸쳐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주제선정을 위해
김해문화도시센터가 주관한 주민자치회 워크숍에 참여했다.
이번 주민자치회 워크숍은 2022년도부터
김해시 읍·면·동으로 확대되는 주민자치회 운영에 맞춰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제안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김해문화도시센터의 퍼실리테이터 파견으로
주민자치회 워원들은 컨설팅을 제공받아
주민참여예산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4월 14일 불암동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워크숍 첫 날, 주민참여예산 컨설팅사업 취지를 안내하고 불암동에 대한 주민의 인식조사가 이뤄졌다.
이어 2차 워크숍(4월 21일)에는 주민들이 바라보는 불암동 문제의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이와 관련해 공감투표를 진행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선정을 위해 열린 3차 워크숍(4월 29일)에서 주민들은 지난 시간 내용을 재검토하고 불암동의 추가 문제점과 사업계획서 초안 등을 작성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변경을 다룬 4차 워크숍(5월 12일)에는 주민들이 직접 사업예비대상지 현장을 방문해 사업계획 구체화와 주제 선정, 사업계획서 변경 등을 협의했다.
전체 4회에 걸쳐 진행된 워크숍에서 주민들이 바라보는 불암동의 현재 모습으로는 낙동강 줄기를 따라 아름다운 동네, 경남과 김해시의 관문,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설 하우스를 한 지역, 카누장이 있으며 화훼단지, 장어타운, 아파트 단지가 혼합된 도·농 혼합동으로 꼽았다.

한편 후각, 시각, 청각 등 육감도로 알아보는 불암동의 현재 문제점으로는 녹조로 인한 악취와 공단 매연, 미세먼지 등의 불편을 호소했다.
이어 청각에서는 아이들과 젊은이들의 소리를 들을 수 없다, 소음 총량제를 적용한 항공 소음지역 피해 보상 확대와 차량 소음, 진동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또 가장 많은 문제가 제기된 시각에서는 어두운 강변길 산책로, 비위생적으로 보이는 주변 고물상, 시각적으로 불편한 카누 경기장 인근 펜스, 도로 안전표시 등 안내판의 부재, 거미줄처럼 엉킨 전선줄 등이 논의됐다.

감각과 미각 측면에서 각각 주민화합을 위한 불암동 축제 부활, 캠핑장, 바비큐장, 둘레길 조성, 시민대상 힐링 치유센터 등 프로그램 개발, 뉴딜사업 연계, 로컬푸드 및 향토음식 개발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아파트 인근 주차공간 부족과 이로 인한 상권 축소, 고도제한으로 인한 개발 제한 등의 문제도 제기됐다.

이번 네 차례에 걸쳐 이뤄진 주민들과의 워크숍에서는 불암동 지역의 보다 더 구체적인 문제점 제시와 심층적인 원인 분석이 이뤄졌다.
워크숍에 참여한 한 주민은 "거미줄처럼 엉킨 전선줄이 미관상 좋지 않다. 적은 예산으로도 전선줄을 정리하는 방법이 있다"며 엉킨 전선줄을 마을 외곽에서 내부로 보내는 방법 등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했다.
또 다른 주민은 기존 시민들의 체육, 휴식공간이 안심치매 센터로 전환되어 주민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시설·공간 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주민은 "다른 공간을 찾아 시민들의 쉼터 확보가 필요하다"며 체육관 시설 활용 방안과 불암동 14-15통 공원 조성 계획 구체화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어산 등산로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등산로 경사가 심한 곳은 우천시 토사가 쏟아져 내려 이에 따라 데크 등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또 등산로 입구 화장실에 먼지털이 기계 비치, 신어산 내 이정표 및 정상까지의 거리 표지판 설치, 포토존 코스, 운동시설 코스 등 각종 코스 개발을 통해 관광객 유치도 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웠다.

신어산 등산로 개선·보완 문제에 이어 불암동과 지내동 구간 산책로 및 둘레길 조성과 수십년간 지역 내에서 논의하고 있는 항공 소음 지역의 피해보상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외에도 불암동 곳곳의 환경 정비, 강변 등 초입에 식재 조성, 동원2차아파트 옹벽 미화작업 필요 등을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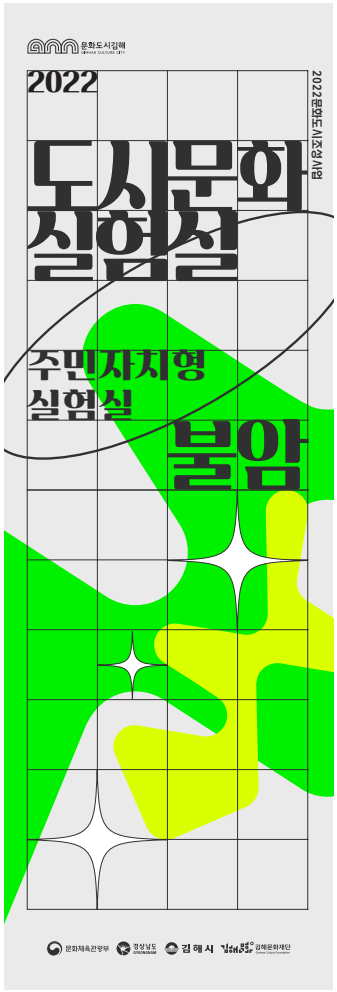
주민들은 4차례에 걸쳐 이뤄진 워크숍을 통해 우선 사업 신청으로 카누경기장의 펜스로 인해 미관상, 도보상 좋지 않다며 '강변 담장 허물기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현재 낙동강유역천 카누경기장의 펜스로 인해 주차공간 확보가 되지 않아 맞은편 상가로 주차하게 되어 민원이 다량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카누경기장 펜스는 낙동강을 볼 수 없게 만들어 주민들의 시야를 가린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주민들에게 강변을 돌려주자'는 취지로 펜스 철거 및 미화작업을 통해 불암동의 친환경 뷰 조성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1차 주민자치형 사업 신청서 초안을 작성했다.
주민들은 이 사업을 통해 강변의 아름다움을 선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펜스로 인한 주차, 넝쿨 등 민원 발생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기대효과로 봤다.

특히 강변산책로 인도 확장과 조명설치, 다년생 식물식재, 투명 펜스 등의 설치로 불암동의 랜드마크 성장 가능성도 내다봤다.

이어 주민들이 작성한 2차 신청서에서는 '서낙동 강변 로즈로드 정비 및 강변뷰 확보 프로젝트'로 사업이 확대됐다.
불암동 강변은 김해에서 유일하게 서낙동강을 조망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방치된 강변 식재 정리를 통해 로즈로드를 정비하고, 강변 초입부 철제 펜스 일부를 투명 펜스로 교체해 강변뷰를 주민들에게 다시 돌려주자는 취지이다.
불암동 랜드마크조성을 위한 로즈로드 산책로 정비와 포토존을 설치해 방문객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불암동실험실 워크숍 배너

2023년 맥산편성을 위한 김해시 주민참여예산 간담회

진례면
실험실

진례면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회 워크숍 "문화도시의 꽃은 시민입니다."

문화자치 실현과 지역 문화력 상승을 위한
문화도시의 핵심은 시민참여이다.
시민들이 지역의 문제를 발굴해 계획 및 실행 등
실험과정의 경험을 토대로 능동적인 역할을 했을 때
지역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

김해시 진례면 주민들은 '김해시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주제선정을 위해 김해문화도시센터가 주관한
주민자치회 워크숍에 참여했다.
이번 주민자치회 워크숍은 2022년도부터
김해시 읍·면·동으로 확대되는 주민자치회 운영에 맞춰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제안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김해문화도시센터의 퍼실리테이터 파견으로
주민자치회 워원들은 2022년 4월 27일과 5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컨설팅을 제공받아 주민참여예산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4월 27일 워크숍 첫 날, 진례면의 문제점 도출과 구체화를 위한 주민참여예산 컨설팅 및 사업 취지를 안내하고 진례면에 대한 주민 인식조사가 진행됐다.
이어 5월 4일 열린 2차 워크숍에는 지난 시간의 내용을 재검토하고 진례면의 추가 문제점을 도출, 구체화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에 제안할 사업아이템 선정 등을 협의했다.

이날 검토된 진례면 현재의 문제점으로는 공장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 교통 혼잡, 주민을 위한 휴식공간 부족, 김해시 쓰레기 집하장 및 공장부지 확장으로 청정지역 소멸 위기 등이 제기됐다.

미래 기대사항에 대해 주민들은 자연친화적 생태마을, 정리정돈 잘 된 차분한 마을, 스포츠·공연장·문화시설 구축, 비음산터널 개통, 쓰레기 분리배출 교육 필요 등을 제시했다.

앞서 진례면이 시도한 다양한 주민자치 활동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4~5년 간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을 위해 화단을 꾸미는 등 불법투기 지역 8곳을 새로운 용도로 조성했다.
이로 인해 개선된 부분도 있으나 여전히 쓰레기가 쌓이는 구역은 일부 남아있다.
주민자치 활동으로 꾸준한 성과도 내고 있다.
화포천 유휴지에 쓰레기장 정비 목적으로 보리농사를 짓고, 수확 후에는 콩을 심어 남은 수익으로 인근 보육원에 후원하는 활동은 좋은 사례를 남겼다.
이외에도 인구유입을 위한 여름·겨울 청소년 체험활동을 진행했고, 화포천 공원 및 둘레길 조성과 평지 저수지 둘레길(2.3km) 화단 조성, 진례면 도자기 축제를 위해 1만평에 달하는 꽃밭도 마련했다.
이 꽃밭은 이후 지자체에서 주차공간 마련을 위해 모두 철거돼 아쉬움을 남겼다.

이번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 주민들과의 워크숍에서는 진례면의 보다 더 구체적인 문제점이 제기됐다.

한 주민은 타 지역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마을 위치와 특산품을 소개할 수 있는 종합안내판의 필요성을 제시했고, 버스정류장과 마을 간 거리가 멀어 작은 마을버스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평지·고령·산촌의 경우 버스 정류소에서 마을회관까지의 거리가 2km일 경우 택시를 1000원 정도에 이용가능한 제도가 있다는 점을 주민들과 함께 공유했다.

또 다른 주민은 진례면의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며 마을에 학원이 없어 타지역으로의 학령인구 유출 문제점을 제기했다.

'진례 오일장'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상품의 신선도가 떨어지고 상품권을 꺼리는 분위기, 상설장이 아니라 평소에는 개방되지 않고 주차공간도 부족하다는 내용이다. 더 나아가 주민들은 시장 칸막이를 만들어 상인들의 개별 구역을 지정하는 방안도 추천했다.

이외에도 수변공원 인근 간이 화장실 설치 요구와 친척 마을에 인도가 없어 통행차량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문제 제기도 포함됐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는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주민 의견이 많았다. 한 주민은 비료포대와 농약병, 농약 비닐 등의 분리 배출이 번거롭다고 했다. 또 현재는 농사에 사용된 쓰레기를 개인이 분리 배출하거나 쓰레기봉투에 버리는 경우, 분리 배출 방법을 잘 알지 못하고, 또 사람들마다 각기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마을별 농약병, 비료포대를 집하하는 장소를 운영하고, 이를 통한 판매수익을 마을 기금으로 적립하는 곳도 있으며, 특히 비료포대는 모아서 전화를 하면 자진 수거하는 제도도 있다는 점을 주민들과 함께 공유했다. 앞서 이러한 제도를 주민자치회 위원조차 알 수 없다면 마을 주민들 역시 정보 공유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민자치 위원들에게 강조했다.

또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아파트 및 매립지 공사, 공단 조성 등으로 분진, 흙, 쓰레기가 많이 발생한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마을 곳곳에 개발 중인 곳이 많아 어수선한 환경과 물차로 분진과 먼지를 없애려고 해도 역부족인 점도 지적했다.

이에 주민들은 '펜스형 공동쓰레기 집하장 설치'를 제안했다. 주민들이 쓰레기 집하 장소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까마귀가 쓰레기를 파헤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펜스형 공동 쓰레기 집하장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다. 진례면에는 34개 마을이 있고, 여기에 2000만원의 예산으로 집하장을 설치하기 어려우므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시범사업을 진행할 마을을 선정할 기준이 없고, 만약 특정 마을에만 진행할 경우에 주민위원회 입장이 매우 난처할 수 있어 갈등이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주민들은 공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여기에 대한 방안도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진례면 주민과의 두 차례 워크숍 진행을 통해 '진례면 공장 지대 중심의 쓰레기 (주민)모니터링단 운영'을 사업으로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사업 내용으로는 공장 사업주 대상 간담회 개최, (외국인) 근로자 대상 쓰레기 바른배출 교육실시, 쓰레기 (주민)모니터링단 운영을 제시했다.

**"갈등은 늘 일상적이고 다뤄야 하는 부분이다.
오히려 가장 어려운 것은 행정의 태도입니다.'**

기존 도시문화실험실은 시민들이 의제를 발굴해 해결 방법을 찾아내고, 실제 예산을 가지고 해결까지 해보는 형태로 지난해까지 진행됐었다.
올해는 주민자치형, 주민자치회의, 주민참여예산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 주민자치형를 따로 포함시켰다.
도시문화실험실 이한준 PM은 전문인력인 퍼실리테이터 지원으로 시민들이 회의하는 경험을 축적하기 위해서라고 주민자치형을 포함시킨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늘 그동안 익숙해왔던 것은 행정이 결정하고 주민들은 수혜를 받는 존재라고 생각해왔다"며 "주인인 주민이 결정을 하고, 행정이 일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많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우리 문제를 우리가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다는
경험을 하는 것이 바로 시민역량입니다."**

그는 도시문화실험실 자체가 시민이 주인이 되게 하는 활동이라고 말했다.
늘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이 주인이라고 하지만, 주인 권리는 투표할 때에만 쓰이고 장롱 속에 묻어 두는 것이 보통의 인식이었다. 하지만 일상의 모든 정책 결정에 스스로 목소리를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주민자치이고, 그 주민자치를 넓혀가는 하나의 수단이 바로 도시문화실험실이다.

그는 "개인이 사진을 잘 찍고, 회계를 잘 하는 것만이 일 하는 역량이 아니다. 함께 모여서 회의를 잘 하는 역량, 다른 이의 의견을 잘 듣고 경청할 수 있는 역량,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다는 경험을 하는 것이 시민역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바로 실험실을 통해 시민역량을 키우는 일을 하자는 것에 계획이 잡혀 있다는 것.

다만 아쉬운 부분은 있다. 아직까지 시민이 주인으로 참여하기보다는 일자리를 목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회의수당을 목적으로 참여하거나, 때로는 우리가 기획한 프로젝트 공모비를 목적으로 쫓는 이들도 있다.
그러다보니 계속 일 욕심 있는 사람들만 참여하는 경우가 있고, 일 잘 하는 것이 곧 좋은 시민인 것처럼, 더 우월한 시민인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그는 "내 삶의 문제를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가만히 두지 않겠어, 라는 마음으로 시민들이 주인 자리를 제대로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민들의 이런 능동적인 마음이라면 주민자치회는 앞으로도 '정말 잘 될 것 같다'고.

행정협치형

CPTED 수립·시행하는 정책 과정에 시민의 참여와 숙의 과정을 지원함으로 협치의 문화 조성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김해문화도시센터 업무협약 체결"

김해중부경찰서와 행정협치형 실험실이 함께 <김해여고 여성안심귀갓길 재정비 및 조성> 진행

[시민연구원]
김은숙, 박남진, 박정은, 이은영, 양현정, 조현수

사업결과

- 실험실에서 제안한 '너나들길'로 <김해여고 여성안심 귀갈실> 명칭 채택
- 도막형바닥제, 솔라표지병, 반사경 등 시민연구원의 의견이 반영된 설계안으로 <김해여고 여성안심귀갓길> 조성
- 내년도 여성안심귀갓길 대상지 제안

행정협치형
실험실

너나들길 -
너랑 나랑 안심하고 드나드는 길

박남진

Q. 자기소개

A. 김해사회혁신가 네트워크 대표를 맡고 있다.

도시문화실험실은 2021년 내외동실험실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하였고, 올해는 시민연구원으로 행정협치형 실험실에 참여하여 소중한 인연이 되었다.

Q. 앞으로의 협치에 대한 기대

A. 최근,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많은 시민들이 행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열의가 매우 높아져 가고 있다.

이번 행정협치형 실험실이 좋은 모델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이번 실험실처럼 경찰행정과 시민이 함께 만들어 진행된 사례가 긍정적인 결과로서 김해시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이 확산되었으면 한다.

특히 행정이 중심이 되고 시민은 들러리만 서는 것이 아닌 시민이 주체가 되어 결과까지 행정과 함께 만들어 가는 제대로 된 협치문화로 자리잡길 희망해 본다.

박정은

Q. 자기소개

A. 행정협치형 실험실 연구원이자 맏언니를 담당하고 있다.

Q. 시민연구원으로서 행정협치의 의미는?

A. 지역의 전문가는 누구보다 그 지역을 잘 아는
지역주민이라고 생각한다. 같은 문제라도 대상에 따라
다르게 보여지고 그에 따른 해결방법도 다를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해 보이는 문제는 획일화된 방법
으로 민원으로 받고 해결해 왔다고 생각한다.
행정협치 실험에 참여하면서 어린이, 여성, 독거노인,
1인가구 등 취약계층의 다양한 문제들을 경찰과 행정
그리고 시민연구원들이 함께 고민하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결과로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심리적으로 훨씬 길고
어둡게 느껴졌을지도 모를 골목이 환한 '너나들길'로 새로
태어났다. '너나들다', '너와 내가 안심하고 드나드는 길'이란
뜻을 지닌 '너나들길'이라는 이름도 시민연구원들이
함께 토론을 거쳐서 만들었다.
이전의 골목을,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도 불편하지 않고
그 골목길을 지나는 하교길의 여고생들도 안심하고 다닐수
있게 하려면 어디를 어떻게 밝게 할 것인지에 대해
오래 이야기를 나눴고 모아진 우리의 의견을 보태기도 했다.
시민연구원으로서 행정협치의 의미는, 어쩌면 있을수도
있었던 위험을 시민의 눈으로 찾아내고 경찰과 행정은
귀를 열고 그 소리를 잘 들어 시민이 안심할수 있고 마음에
들도록 손발로 뛰는, 찾아내고 해결하는 모든 과정을
시민과 경찰 그리고 행정이 정말로 협업해보았다는 것에
있다고 생각한다.
행정협치에 참여한 시민연구원의 시간은 뿌듯한 보람의
시간이었다.

조현수

Q. 자기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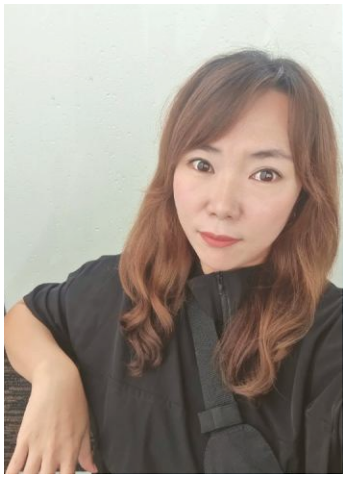
A. 장유1동 토박이로 장유와 무계를 소개하고 싶어 우연히 '뚜루드 가야'라는 프로그램으로 김해문화도시센터와 인연이 되었고, 와야G 시민축제 등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우리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환경 관련 등 각종 단체에서 봉사 활동 중이다. 앞으로 우리 무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Q. 도시문화실험실의 시민연구원으로 행정협치형실험실에 참여한 소감

A. 부족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연구원이 되어 직접 만들어가는 행정협치형실험실에 참여하게 되어 감사했고, 특히 여러 시민연구원들과 함께여서 좋았다.

그리고 이한준 PM님과 이미혜 퍼실리테이터가 계셔서 너무 든든했으며, 일정 잡고 연구원들 일일이 챙겨주신다고 고생하신 고지현 코디님과 끝까지 고생하신 진예은 담당자님 감사드린다.

김해여고 여성안전 귀갓길은 김해중부경찰서 관계자와 CPO님과 함께 만든 결과물이어서 더욱더 보람된 일이 아니었는가 생각한다. 모두 고생하셨다.



양현정

Q. 자기소개

A. 행정과의 진정한 협업을 꿈꾸는, 미소가 예쁜 행정협치형 실험실 연구원이다.

Q. 협치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A. 협치란 여러 공공 조직의 업무를 관리하기 위해 시민들과 협력하여 업무를 같이하는 거라 생각한다.

김해시가 더 많은 협치형으로 시민참여가 되어 가면 더욱 발전되리라 생각한다.

기회가 된다면 다음번에도 열심히 참여해보겠다.

행정협치형에 참여하신 우리 연구원님들 모두 정말 수고 많으셨다.

김은숙

Q. 자기소개

A. 미모나 열정으로나 김해 1번 이모이자 행정협치형 실험실 연구원이다.

Q. 이번 행정협치형 실험실의 가장 큰 성과는?

A. 처음 행정협치라 했을 때 정말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 수렴해서 만들어갈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었다. 행정과 민간이 같이 한다고?? 진짜??
그러고 첫회의에서 그럼 그렇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미 다 짜져있는 틀을 들고 왔더라. 그래서 우리보고 어쩌라는거지? 그냥 우리는 액션만 취해야하는건가??
행정에 대한 알 수 없는 불신같은게 저한테 있었던거 같다. 그래도 한가지 희망적이었던거는 확정된게 아니라 연구원들의 논의를 통해 수정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아,, 행정에서 조금은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구나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처음부터 세팅할 때 시민들과 함께 논의해서 진행했었음 더 좋았겠지만 행정에서 독단적으로 뭘 진행하는게 아니라 적어도 시민들과 함께 해보겠다라는 것과 결과로는 딱딱하고 부정적이었던 여성안심길이란 이름에서 누구나 안심하고 너나들수있다는 의미의 "너나들길"이란 이름이 받아들려져서 어쨌든 시민에 의해서 뭔가가 결정지어졌다는 것! 이것이 이번 실험실에서 얻은 가장 큰 성과가 아니었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든다.
이번 실험실이 행정협치의 첫걸음 되어서 앞으로 좀 더 행정과 시민이 함께 만들어갔으면 하는 바램이다.

양현정

Q. 자기소개

A. 도시문화실험실 연구원이자 행정협치형 실험실 비타민이다.

Q. 도시문화실험실 참여소감

A. 안전한 거리를 위해 다양한 기법도 알아보고, 적용하면서 좋은 경험을 했다. 재미있었던 시간이라 생각된다. 내년 김해시의 안전한 거리도 기대해본다.

김해여고 여성안심귀갓길 정비사업 개통식 계획(안)

Ⅰ 배경 및 필요성

- 김해여고 정문 앞 골목길은 여고생들의 등하굣길은 물론, 인근 주민 등 통행이 잦은 곳으로 지난 18년 김해여고 협업 사업으로 여성안심귀갓길로 조성 관리중이나, 노후한 주택과 시설물(철조망) 등으로 인해 여전히 범죄발생 위험이 내재되어 있음

- 이에 김해시 중부경찰서는 올해부터 여성안심귀갓길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였고, 김해문화도시센터와 업무협약을 통해 행정과 시민이 협치를 이루어「김해여고 여성안심귀갓길 정비사업」의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논의하는 【행정협치형 실험실】을 진행함

- 김해문화도시센터 행정협치형 실험실에서 다음과 같은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새롭게 정비된 김해여고 여성안심귀갓길의 개통을 축하하고 알리는 개통식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됨

> ○ 주요 논의내용
> - 김해여고 안심귀갓길 현재 문제점 도출 및 재정비 아이디어 제시
> - 안심귀갓길 새로운 명칭 제안 **(너나들길 : 너랑 나랑 안심하고 드나드는 길)**
> - 김해여고 안심귀갓길 (정비 후) 개통식 프로그램 기획
> - 2차 여성안심귀갓길 정비 대상지 선정을 위한 답사, 의견수렴

※ 본 사업계획서는 개통식 프로그램 실행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Ⅱ 사업의 목적 및 내용

- 사 업 명 : 김해여고 여성안심귀갓길 '너나들길' 개통식 계획(안)
- 일　　시 : 2022년 9월 중 (미정)
- 장　　소 : 김해시 가락로 150번길 9 김해여고 일원
- 대　　상 : 인근 거주민 및 김해여고 학생
- 사업규모 : 2,000천원

[사진] 김해여고 여성안심귀갓길 구간

- 사업내용

① 길의 시작 지점과 끝 지점에서 X배너를 설치하여 행사의 취지를 홍보
- 지역주민과 김해여고 학생들이 여성안심귀갓길 조성의 배경과 본 행사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여 배너를 게시함
- 이때 해당 위치에 활동인력 1인씩을 배치하여 참가자들의 충분한 이해를 돕고, 사업기획에 참여한 시민연구원들도 당일 개통식에 참가하여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임

② 개통식 참가자들의 기대를 담은 엽서 전시
- 기존의 일방적이고 형식적인 행사에서 벗어나 참가자들의 의견으로 구성된 행사를 기획

- 개통식에 참가한 지역주민, 김해여고 학생들과 기관 관계자분들의 기대와 바람을 엽서에 적어 너나들길 담벼락에 게시

> (질문 예시) 너나들이 길을 보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 너나들이 길에 대한 기대를 적어주세요.

- 한쪽 담벼락을 줄로 길게 연결하여 참가자들이 적은 엽서를 전시하여 갤러리화 함으로써 볼거리를 제공

> **$ 고려하여야 할 사항:**
> 1. 귀갓길 조성이라는 목적에 맞게 행사는 저녁시간에 진행되어야 함
> 2. 김해여고 학생들이 본 행사에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조가 이루어져야 함

[참고사진] 담벼락 엽서 전시모습

출처 : 리네아스토리 블로그 https://m.blog.naver.com/motivator0/220526470368

Ⅳ 기대효과

- 지역주민과 통학로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여성안심귀갓길 조성의 배경과 목적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됨
- 평소 여성안심귀갓길에 대해 주민들이 가진 생각과 기대를 확인하고, 향후 행정에서 어떤 점을 보완하고 계획해야 하는지 비로소 알 수 있음
- 본 사업이 민관협치의 좋은 사례로 소개됨으로써 향후 지역사회 문제해결 과정에서 다양한 민관협치 가능성과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됨

Ⅶ 예산계획(안)

구분	세부사항		금액	비고
인건비	단순 인력비	10,000원×2명×2시간	40,000	
운영비	X배너	40,000원×2개	80,000	
	참가자 기념품 (호신용 호루라기)	2,800원×600개	1,620,000	
	물품구입비 (카드, 끈, 집게, 붙펜 등)	180,000원×1회	180,000	
	시민연구원 식비	8,000원×10명	80,000	
합계			**2,000,000**	

청소년 실험실

갈 곳 없는 청소년들과 그들을 향한 불편한 시선

[시민연구원]

서지현, 송은경, 이사라, 이은정, 임예지, 전미영

이주배경 실험실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겪는 학교생활의 어려움

[시민연구원]

김경희, 김태경, 서숙정, 이은주, 이현주, 이희진, 오미숙, 여채원

재활용 실험실

재활용으로 이어지지 않는 잘못된 분리배출

[시민연구원]

김도숙, 김태림, 고옥자, 이진순, 장인희, 최선미

길고양이 실험실

길고양이 문제로 인한 사람들 간의 갈등

[시민연구원]

김순덕, 김미숙, 이연일, 이혜진, 장행영, 최현우

횡단보도 실험실

횡단보도에서 겪는 위험과 불편

[시민연구원]

박진근, 백미늠, 차영례, 허모영

시민의제발굴형

지역, 연령, 부분 및 분야 등 폭넓게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실험실 구성

청소년
실험실

갈 곳 없는 청소년들과 그들을 향한 불편한 시선

[시민연구원] 서지현, 송은경, 이사라, 이은정, 임예지, 전미영

[실험프로젝트 요약]

- 청소년의 주체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지는 부모교육 <수다방>
- 청소년 주체성 확보를 위한 강사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청소년 강사>

도시문화실험실의 청소년실험실 시민연구원들은 11월 9일 꿈키움도깨비마을학교에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글라스돔 원데이클래스'를 진행했다. 청소년실험실은 청소년의 주체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부모교육 목적의 '수다방'을 열어 '원데이 클래스' 식의 회기마다 참여를 유도하면서 수다와 대화를 통해 인식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이날 학부모들과 '글라스돔 원데이클래스'를 마친 시민연구원들은 이번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인터뷰도 가졌다. 다음은 시민연구원들과의 일문일답.

송은경

Q. 자기소개

A.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도시문화 실험실에 참여하게 되었다.

Q. 도시문화실험실을 통해 내 삶에 변화된 점이 있다면?

A. 청소년 실험실 참여를 통해 그들의 문화, 생각, 행동들을 나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청소년들의 현재는 우리가 겪어 왔거나 알고 있던 청소년 시기가 아니다.

처음 주어지는 것들이기에 시대에 맞는 청소년의 문화와 시간이 그들 사이에 형성되어 있음을 인정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지, 우리는 먼저 살아 본 어른이자 부모로 그들의 문화를 인정하고, 그들의 필요를 올바른 방법으로 채워줄 수 있으면 될 것이라 여겨진다.

전미영

Q. 자기소개

A. 올해로 3년차 도시문화실험실에 참여하고 있다.

첫해 당시 책임연구원이었던 문경미 선생을 만나 너무나 큰 격려와 지지를 받았던 것이 지금까지 실험실에 남게 된 첫번째 이유이다.

Q. '갈 곳 없는 청소년들과 그들을 바라보는 어른들의 불편한 시선'이라는 의제를 고민하며 느낀점?

A. 그들을 향한 불편한 시선은 다름 아닌 나의 편견이었다. 당사자인 청소년들은 전혀 불편함이 없었고 그들의 행동과 공간은 그들만의 놀이이자 문화일 뿐이었다. 그래서 갈 곳이 필요한 대상(청소년)에게 시선을 돌려 문제를 다시 살펴본 결과 이들도 대부분 입시와 시험, 성적이라는 제도 안에서 결정권이 없었다. 결국 부모의 교육관이 청소년들의 결정권, 곧 행복권을 좌지우지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고, 우리와 공감하는 지역민들의 마음을 모아 제도의 변화까지 이르게 해 보겠다는 대장정 프로젝트에 이르게 되었다.

서지현

Q. 자기소개

A. 3년 동안 실험실에 참여한 이들의 독려로 본 실험실 연구원 일원이 되었다.

Q. 실제로 실험프로젝트를 진행해보니 어떠한가?

A. 청소년 실험실을 진행하면서 처음에는 잘될까, 하는 걱정이 앞섰다. 하지만 차시를 거듭하며 참여자분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다들 너무 좋아해주셨다.
특히 수업 후 집으로 가면 그날은 무조건 자녀들과 기분 좋은 대화가 오간다면서 기회가 생긴다면 연구원으로 꼭 참여하고 싶다는 말씀도 해주셔서 정말 보람되었다.
덧붙여 각 분야별로 문턱을 낮춰 어느 누구라도 실험실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은정

Q. 자기소개

A. 율하에 거주하며 중3, 초6 딸아이 둘을 키우고 있다.

Q. 도시문화실험실 활동 중 가장 뜻깊었던 순간은?

A. 여러 체험과 함께 어머니들과 의미 있는 대화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 모든 활동이 뜻깊었다. 청소년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부모가 되도록 하겠다.

임예지

Q. 자기소개

A. 청소년실험실의 항상 긍정적이고 비타민 같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 중이다.

Q. 도시문화실험실의 시민연구원으로 청소년 실험실에 참여한 소감

A. 회의를 통해 다양한 토론과 청소년의 문제점, 문제 해결 방법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민연구원들의 좋은 말씀들을 귀담아 들으며 배움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좋았다. 앞으로도 청소년이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의 손길이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사라

Q. 자기소개

A. 청소년 진로·상담 분야에서 11년 차 몸담고 있으며, 현재는 전국 청소년들의 진로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한 콘텐츠를 기획하고 있다.

Q. 청소년 실험실의 실험프로젝트를 통해 이루고 싶은 바람이 있다면?

A. 올 한해의 실험실은 또 마무리되겠지만, 계속해서 매년 거듭 이어져 하나의 주제를 두고 부분 부분마다의 작은 프로젝트들이 연속성을 가져 점점 큰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도록 지속되기를 바란다. 이리저리 고군분투하며 시작된 이 청소년 실험실의 프로젝트가 아주 작은 씨앗이 되어 청소년들이 행복하고, 청소년들과 어른들의 건강한 소통과 어울림이 있는 그런 지역사회의 시작점이 김해에서 일어나기를 희망한다. 많은 도움의 손길이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청소년 프로젝트 세부 사업계획서

Ⅰ 배경 및 필요성

갈 곳 잃은 청소년과 그들을 바라보는 어른들의 불편한 시선

- 김해지역 내에서 **유일한 고교 비평준화 지역이 장유** 지역임. 비평준화로 인하여 중학생들이 고교 진학에서부터 실패와 좌절감을 경험하고 있음.
- 중학교 2학년부터 in장유 하지 못하는 내신등급의 학생들은 학원에서의 가치를 찾거나 자신에 대한 긍정적 주체성을 확인받지 못하고 있음.
- 또한 청소년들이 학원을 제외한 갈 곳은 모두 유료로 이용가능한 카페, 피씨방, 노래방 등 한정적인 실정이고, 김해의 청소년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은 3% [1]뿐임. 특히 **장유 지역의 경우 1%의 청소년만이 청소년시설을 이용**하고 있음.
- **청소년들이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마음껏 해 볼 수 있는 공간적, 심리적 환경이 결여되어 있고, 어른들은 학원이나 학교를 가지 않고 청소년들끼리 몰려 있는 것을 어른들의 편견으로 판단하고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음**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펼치면서도 마을의 유휴공간을 이용하도록 할까? 청소년을 바라보는 어른들의 불편한 시선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청소년이 더 이상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의 소비자가 아닌
주체적인 생산자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험을 하게 하자!

청소년	공간	콘텐츠
· 학업성적이 높지는 않아도 자신이 잘하는 분야가 하나라도 있는 청소년	· 마을 유휴공간 마을학교 공간/공공시설 부모이용 민간시설/아파트 내 공간 등	· 청소년 강사 컨텐트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편집/아이패드 스케치/홈네일아트/페이크업/댄스 등

1) 2021년 김해시청소년 종합실태조사

Ⅱ 사업의 목적 및 내용

(실험1) **장유 내 유휴공간**을 청소년들 프로젝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김해시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내 **장유동 유휴공간 확인**
↓
장유 1-3동 작은 도서관 및 공공시설, 민간 시설 23개 존재 확인
↓
청소년 프로젝트 실행 시 **활용 가능 여부 확인 및 프로그램별 연계** 예정

(실험2) 어른들이 다 짜주는 것 말고 **청소년이 주체**가 될 수 없을까?

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지 배포**
↓
설문지를 배포(7월말)하고, 설문지를 취합하였음.
↓
② 프로젝트 기획, 운영에 실제 주체인 **청소년**이 함께 할 수 없을까?
↓
청소년 기획단을 모집하여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자!
이를 위해 사전 청소년 자문회(8/28)를 개최하여 **청소년 ◎명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향후 청소년기획단을 모집하여 함께 진행 예정임.

(실험3) **어른들의 시선을 개선**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청소년의 주체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지는 부모 교육의 필요가 있음
↓
'수다방' 을 통하여 어른들에게도 청소년들이 학업 이외에도
다양한 영역에서 가능성을 가진다는 것을 알림.

Ⅲ 실험실 개요

일　　시 : 2022.09.~11.
장　　소 : 김해시 장유 일대
대　　상 : 김해시 일대 거주 청소년 (주요 장유지역 중고생)
사업규모 : 4,000천원

주요 사업내용

1) 청소년 강사

○ 목적 : 청소년 주체성 확보를 위한 강사 활동 기회 제공

구분	내용
강사 섭외	- 청소년 2명 섭외(완료) - 강사 1인당 3회 강의 진행 (강사 2명 모두 댄스 강의)
장소 선정	- 사용가능한 장소 리스트(담당자 연락처 등) 확보해서 청소년 강사에게 제공 - 직접 연락해서 장소 대관 진행 / 시민연구원이 지원 가능
추진 방향	- 강사 1인당 3회 진행 - 본인이 강의 기획, 모집, 홍보, 장소 섭외 등 진행 (모집 안될 시 폐강)

2) 부모교육 목적의 '수다방'

○ 목적
① 청소년의 주체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지는 부모교육
② 청소년 주체성 확보를 위한 강사 활동 기회 제공
③ 청소년 기자단을 통한 청소년의 사회적 활동 기회 확장
○ 대상 : 청소년 자녀를 둔 보모 (10명 내외)
○ 방향 : 시민연구원이 1인당 1회를 담당해 기획・사회로 진행
○ 횟수 : 5회
○ 추진상의 어려움
① 강사확보 : 시민연구원이 1인당 1회를 담당하여 강사 섭외 진행
② 시민연구원의 역할 : 시민연구원이 사회자 역할

3) 공유회

○ 목　　적
① 청소년 실험실 참가자 전체가 모여 내용을 발표&공유하는 기회
② 가족 단위 참여 가능한 행사로 기획
③ 청소년 기자단을 통한 청소년의 사회적 활동 기회 확장
○ 대　　상 : 청소년 실험실 프로젝트 참가자 전원 및 가족
○ 장　　소 : 40명 모임 가능, 취식 가능한 공간 필요
(진미영 연구원님 공간 활용 예정)

Ⅳ 기대효과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주체적 프로그램 실험을 통해 청소년들의 이에 대한 반응과 수요 확인
청소년들이 학업 이외 자신의 관심 분야를 계발하고 이를 통해 강사로 활동하는 기회를 통한 청소년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
주체적 청소년 활동으로 인하여 주말이나 평일에 길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지역의 안전한 유휴공간에서 자신의 재능을 기획하고 펼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
청소년들에 대하여 가지는 어른들의 편견과 불편한 시선의 개선

Ⅴ 향후 계획

김해시장 공약사항에 기록된 청소년 활동활성화, 공간 지원과 연계하여 청소년 주체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김해시 청소년과에 사업을 제안
향후 마을학교의 유휴공간을 활용 할 수 있도록 행복교육지구와 연계하여 청소년들이 어른들의 불편한 시선을 벗어나 자유롭고 안전하게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확보

Ⅵ 추진 일정

구분	일정	세부내용
사전회의	8월 중	- 청소년TFT 2-3명 추가하여 실험실 최종 운영 계획서 확정
▼		
프로젝트 활동 1	9월 ~ 11월 중	- 프로젝트 참가자 (청소년강사) 모집 - 프로젝트 수강생 모집 - 프로젝트 운영
▼		
프로젝트 활동 2	9월 ~ 11월 중	- 수다방 강사 섭외 - 프로그램 참가자(학부모) 모집 - 프로젝트 운영
▼		
평가회의	11월 중	-
▼		
최종 결과보고	O. OO.(요일) 10:00~15:00 / 장소미정	- 내용1 - 내용2

Ⅶ 예산계획(안)

구분	세부사항	금액	비고
수다방	수다방 강사비 90,000원(2시간)×2명×5회	900,000	5급2사(2기존
	재료비 12,000원×20명×5회	1,200,000	
	다과비 5,000원×20명×5회	500,000	
	현수막 30,000원×1개	30,000	
	미니배너 25,000원×5명×1개	125,000	
	소 계	**2,755,000**	
청소년 강사	강사비 20,000원×2명×3회×1시간	120,000	강사당 3회
	다과비 5,000원×7명×4회	140,000	강사당 2회
	현수막 30,000원×1개	30,000	
	X배너 40,000원×2명×1개	80,000	
	소계	**370,000**	
공유회	식비 및 다과비 15,000원×40명	600,000	
	현수막 60,000원×1개	60,000	대형
	X배너 40,000원×1개	40,000	
	소계	**700,000**	
운영비	대관비 600,000원×1식	600,000	
	문구비 200,000원×1식	200,000	
	회의식비 및 다과비 15,000원×6명×4회	360,000	
	소계	**1,160,000**	
합계		**9,970,000**	

이주배경
청소년
실험실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겪는 학교생활의 어려움

[시민연구원] 김경희, 김태경, 서숙정, 이은주, 이현주, 이희진, 오미숙, 여채원

[실험프로젝트 요약]

• 이주배경 청소년 사회적응 지원체계 실태조사

1단계	2단계	3단계
자료조사	유관기관 담당자 인터뷰	관계자 간담회

• 연구보고서 제작

도시문화실험실의 이주배경실험실은 10월 27일 김해시사회복지관에서 '이주배경청소년 사회적응 지원체계 실태조사'를 위해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FGI'(FOCUS GROUP INTERVIEW)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이주배경청소년 사회적응 지원체계 실태조사를 시행 중인 시민연구원들이 기획했다.

간담회에는 김해시 여성가족과 강미 팀장, 글로벌마인드 통합연구소 성수나 대표, 징검다리센터 옥영숙 대표, 김해시가족센터 이경현 팀장,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 김가람 팀장, 김해글로벌청소년센터 손은숙 센터장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주배경청소년 사회적응 지원체계 실태조사 1단계(설문 및 자료수집)에 이어 2단계 진행으로, 향후 이주배경 청소년 사회적응 지원체계의 방향성 수립을 위해 마련됐다.

한편 이날 각 기관 관계자들과의 FGI 간담회를 마치고 시민연구원들의 인터뷰도 이어졌다.

다음은 시민연구원들과의 일문일답.

서숙정

진례면 거주 시민

Q. 시민연구원으로 참여한 소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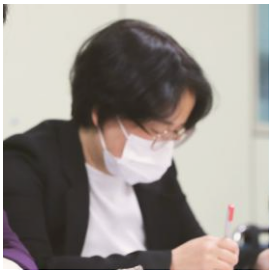
A. 참여할수록 어려웠다.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아 답답하기도 했다가 뭔가 보이기도 하고 그랬다. 그래도 우리 시민연구원 8명이 서로 합심해 여러 의견을 나누고 실험프로젝트를 위해 노력했다. 이번 기회로 이주배경 청소년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다.

이은주

삼계동 거주 직장인

Q. 시민연구원으로 참여한 소감

A. 김해시민들이 이런 모임을 해나가는 것 자체가 신기했고, 그들의 일원이라는 사실이 뿌듯했다. 실험실을 통해 알지 못했던 기관들을 많이 알게 되었는데, 이번 FGI를 통해 형성된 네트워크를 앞으로 잘 활용해볼 계획이다.



김태경

김해를 사랑하고, 문학과 문화예술에 관심 많은 시민

Q. 도시문화실험실 활동 중 기억에 남는 순간

A. 의제를 고민하고 토론하느라 여름부터 겨울의 늦은 밤까지 약속된 시간이 지나도록 함께한 8인들의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 더 많은 김해시민들에게 이주배경 청소년에 관한 관심을 유도하고 실천적 실험프로젝트로 연결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

김경희

마을해설사 / 김해 인절미투어 가이드

Q. 도시문화실험실에 참여하게 된 배경

A. 김해 원도심 문화역사 해설을 하고 있는데 동상동 쪽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해 막연히 신청하게 됐다. 도시문화실험실에 참여하면서 각 분야 기관 담당자들이 노력을 많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김해에는 다문화, 중도입국, 이주배경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 앞으로 이 아이들의 한국 적응을 돕기 위한 관심이 많아지길 바란다.

이희진

미래교육플래너, 미래융합교육원 내표

Q. 나에게 도시문화실험실이란?

A. 막연하게 관심이 있던 주제에 접근해보기 위해 참여하게 됐다.
우리가 다뤘던 의제가 이주배경 청소년들이다 보니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 '관심의 정도'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깊게 해볼 수 있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 귀하게 보지 않아야 할 것은 없다는 것을 상기하게 됐다. 프리랜서 강사를 하며 종종 뵙게 되는 외국인들이 있다.
앞으로는 그분들께 먼저 손 내밀고, 마음을 열 수 있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도시문화실험실은 나에게 이주배경 청소년을 위해 한 발 더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사업이었다.

이현주

김해거주 20년차

Q. 도시문화실험실을 통해 배운점

A. 관심으로부터 시작했다면 작은 변화라도 만들어 낼 수 있게 움직이는 실천력도 중요하다고 느꼈다. 이주배경 청소년의 문제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이 풀어가야 할 숙제라는 생각이 든다.
여기서 끝이라고 적기보다 계속 진행 중이라는 마음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해야겠다.

오미숙

사회적기업 다문화카페 통 대표

Q. 도시문화실험실 활동 중 가장 뜻깊었던 순간

A. 현재 결혼이주 여성들과 다문화카페에서
일자리 창출 활동 등으로 15년 정도 같이 일을 하고 있다.
특히 중도입국 청소년들, 부모를 따라 들어오는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경우가 많다.
도시문화실험실을 통해 이들에게 어떤 부분들을
앞으로 해줘야 할지 알 수 있어서 뜻깊었다.

여채원

평소 이주배경청소년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시민

Q. 실험프로젝트를 통해 기대하는 바람

A. 언어 장벽이 높은 이주배경 청소년들은 본국에서 아무리
1, 2등을 하더라도 학업 성적이 떨어지고 같은 나이에도
저학년 취급을 받기 때문에 정서적인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
이처럼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것을 지원하면 좋을지,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공부하면서 소통의 장을 가졌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특히 각 분야 기관 관계자들의 이번 회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의미 있는 한 발자국을 내딛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주배경 청소년 사회적응 지원체계 실태조사 계획(안)

Ⅰ 배경 및 필요성

경남 김해시에는 0세에서 18세까지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3] 4,300명이 거주하고 있음. 2021년 4월에 집계된 데이터를 보면 2018년에 비해 초등학생 25%, 중학생 244%, 고등학생 209% 증가하는 등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하지만 외국인 가정 자녀의 고등학교 진학률은 130명 중 68명, 52%에 불과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사회 부적응 문제 역시 증가하고 있음 (2021)

청소년들의 학교 부적응은 비행이나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아 사회문제로 직결된다(이건숙, 2000)는 내용과 유사한 연구가 매우 많음

김해문화도시센터 도시문화실험실 문제발굴 워크숍 당시, 이러한 문제와 상황에 대한 다수의 공감이 이루어져 최종 과제로 선정되었음. 그리고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사회 부적응 문제해결에 관심있는 시민들이 모여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해 토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계획이 완성됨

○ 주요 논의내용
- 이주배경 청소년의 학교 부적응 문제에 대한 시민연구원들의 생각
-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사회관계 및 여정
-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학교 부적응 원인분석
-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김해시의 다양한 시도 탐색

3) 이주배경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청소년과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적응 및 학업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의미한다. 북한이탈· 중도입국· 다문화가족 자녀(부모의 국적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둘 중 한쪽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두 부모가 이주배경을 가지고 있으나, 모두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모두를 포함한다.

Ⅱ 사업의 목적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학교 부적응 문제를 공감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다양한 생각과 관점을 나누었으나, 회차가 진행됨에 따라 대상자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정보가 비비함을 발견하게 됨

마찬가지로 김해시에서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다양한 시도와 방법을 찾아보려**고 했으나, 온라인상에서 쉽게 파악하기가 어려웠음

이에 김해시가 문화다양성을 존중하고 이뤄가기 위해서 이주배경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응 지원체계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시민연구원들이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언하고자 함.

○ 실태조사 목적
- 김해시의 이주배경 청소년을 위한 시도, 방법, 정책의 종합적인 파악 어려움
- 대안학교의 설립의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는 맥락적 이유 조사
- 이주배경 청소년을 위한 학력인증 교육기관의 필요성을 뒷받침할 근거자료 필요

Ⅲ 사업의 내용

사 업 명 : 이주배경 청소년 사회적응 지원체계 실태조사

일　　시 : 2022년 10월 ~ 12월 초

사업규모 : 4,000천원

사업내용

1단계		2단계		3단계
자료조사	→	유관기관 담당자 인터뷰	→	관계자 간담회

[1단계] 기관방문

대상	(1) 김해시 관내 이주배경 청소년 관리 및 교육기관(12곳) 담당자 (2) 김해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위원 (3) 김해시 이주배경 청소년 정책담당 공무원
내용	(1) 현재까지 진행된 사업/프로그램 현황 (2) 내년도 사업/프로그램 계획(안) (3) 담당자 의견
방법	(1) 이메일을 통해 사업취지 안내 및 자료요청 (2) 전화로 재안내 후 방문 [기관방문] 시민연구원이 6곳 방문 (1) 시민연구원 자체 회의(2번)를 통해 방문할 6개 기관 선정 (2) 공통질문 준비해서 방문 (3) FGI 참여 요청 (4) 문화체단 : 공문 협조
기타	(1) 시민연구원의 역할과 단순인력의 역할 구분 필요 - 단순인력은 단순한 역할 부여 - 시민연구원들의 참여, 역할 범위에 대한 논의 필요

[2단계] 담당자 인터뷰(FGI : Focus Group Interview)

대상	(1) 1단계 참여기관 중 6곳을 선정, 해당 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함 (2) 필요 시, 대상자 혹은 이해관계자를 추가
내용	1단계 질문답변에 대한 심층인터뷰 (예시) 이주배경 청소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은? 현재 지원정책/사업들이 가지는 한계점은?
방법	시민연구원과 시민참여단이 FGI 진행방식에 대해 사전교육을 받고, 조를 이루어 인터뷰를 실시, 해당내용을 자료로 정리
기타	(1) 심층인터뷰 진행을 위한 전문가의 교육 및 설계 자문 진행 (2) FGI 참여자 회의수당 1인당 10만원 지급

[3단계] 관계자 간담회

대상	(1) 1,2단계 참여기관 및 기관 담당자 (2) 필요 시, 대상자 혹은 이해관계자를 추가하여 20명 내외로 구성
내용	(1) 1,2단계에서 정리된 자료 공유 (2) 기관별 현황, 계획 공유 및 의견 개진 (3) 이주배경 청소년 사회적응 지원체계의 방향성 토의
방법	퍼실리테이터의 진행에 맞추어 <실태조사>에 맞는 간담회를 진행
기타	- 섭외의 어려움 : 기관담당자가 한 기관당 2명씩 참여는 힘들 것 - 시민연구원의 역할 : 간담회 진행 시 스탭 개념 - 참여자 : 6명×2그룹 - 퍼실리테이터 2명 필요

※ 최종 정리된 자료집은 인쇄물과 온라인으로 제작하여 '김해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김해시정 여성가족과' 등 사업을 기획하고 시행하는 담당자들에게 전달할 계획임

Ⅳ 기대효과

김해시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민관의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함으로써 이주배경 청소년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담당자들이 필요한 지원(계획)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줌

과거 시행된 사업과 프로그램들을 분석하고, 향후 어떤 점을 보완하거나 개발해야 하는지 제언함으로써 이주배경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

궁극적으로 관내 학력인증이 되는 다문화 예비학교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지역사회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취합된 결과를 행정에 전달하여 그 당위성을 검토하는 기회

Ⅴ 추진 일정

구분	일정	세부내용
자료수집	10/1 ~ 10/15 (2주간)	- 사업진행 취지안내 및 현 관내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체계 파악을 위한 자료 요청
▼		
FGI 설문설계	10월 중	- FGI(Focus Group Interview) 진행 및 질문 설계를 위한 전문가 자문컨설팅 (※ 김해문화도시센터에 협조요청)
▼		
FGI 사전교육	10월 중	- 시민연구원/시민참여단 교육 1회 - 일시 및 장소 : 미정
▼		
FGI 실시	10/16 ~ 10/31 (2주간)	- FGI 대상기관 선정 (6곳) - 기관 담당자 대상 FGI 실시
▼		
자료정리 및 분석	11월 초	- 자료취합 및 분석 - 간담회용 자료로 정리
▼		
관계자 간담회	11월 중순	- 장소 : 김해사회적경제지원센터 (예시) - 인원 : 20명 내외 - 내용 : 기관별 현황공유 및 의견수렴
▼		
평가회의	12월 초	- 1,2차 자료 분석 및 인사이트 도출 - 실험실 과정에 대한 내부 평가
▼		
최종 결과보고	날짜 미정	- 일시 및 장소 : 미정 - 내용 : 실험실 결과공유 및 평가

Ⅵ 예산계획(안)

구분	세부사항	금액	비고
기관방문	기관방문비 30,000원×6곳	180,000	
	소계	**180,000**	
FGI	전문가컨설팅 370,000원×1명	370,000	1급 2시간
	FGI 참여자 사례비 100,000원×6명	600,000	
	다과비 5,000원×15개	75,000	
	소계	**1,045,000**	
간담회	메인 퍼실리테이터 400,000원×1명×2시간	400,000	기획비 포함
	협력 퍼실리테이터 300,000원×1명×2시간	300,000	
	현수막 50,000원×1개	50,000	
	X배너 50,000원×1개	50,000	
	다과비 5,000원×22명	110,000	
	소모품비 100,000원×1식	100,000	
	소계	**1,010,000**	
운영비	회의식비 및 다과비 15,000원×10명×4회 - 사전 2회, FGI 1회, 평가회의 1회	600,000	
	보고서 정리 및 편집 1,000,000원×1식 - FGI, 간담회, 최종결과 등 보고서 정리	1,000,000	
	보고서 제작(디자인 포함) 15,000원×50부	750,000	
	우편료 4,000원×20곳	80,000	
	소계	**2,430,000**	
합계		**4,665,000**	

재활용
실험실

재활용으로 이어지지 않는 잘못된 분리배출

[시민연구원] 김도숙, 김태림, 고옥자, 이진순, 장인희, 최선미

[실험프로젝트 요약]

- 마을 내 공동 분리배출 공간 운영
- 마을 주민 분리배출 교육 시행
- 공동 분리배출장 설치에 따른 재활용품의 품목별 무게 측정 모니터링

도시문화실험실의 재횔용실험실 시민연구원들은 11월 1일 무계회관에서 마을 내 공동분리배출 공간 운영 등의 사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재활용 실험실 시민연구원은 이번 실험을 통해 공동 분리배출장의 지속적 운영과 마을주민 공공일자리 창출이 전역에 확대되어 재활용이 자원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이날은 공동분리배출장 현장 점검과 배출된 재활용품의 품목별 무게측정 모니터링 등을 실시했다. 공동 분리배출장 현장점검을 마친 시민여구원들은 도시문화실험실 활동 소감 등을 밝히는 인터뷰를 가졌다. 다음은 시민연구원들과의 일문일답.

최선미 시민연구원

Q. 자기소개

A. 평소에도 쓰레기 배출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우연한 기회에 시민연구원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문제의 인식에서 벗어나 해결의 시작을 경험할 수 있어서 더없이 좋은 시간이었다.

Q. 도시문화실험실의 시면연구원으로 참여한 소감

A. 재활용으로 이어지지 않는 잘못된 분리배출이라는 문제로 실험실을 만날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
덕분에 시민연구원들과 함께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더 줄일 수 있을지 고민하던 지점이 해결된 것 같다.
쓰레기 문제는 제일 먼저 양을 적게 내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한다. 그다음이 제대로 된 분리배출이다.
작지만 큰 문제를 통해 스스로가 조금 더 성장한 것 같다.
다음에는 더 적극적으로 더 큰 문제의 실험실에 도전해보겠다.

장인희 시민연구원

Q. 자기소개

A. 김해 율하에서 초중고 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이다. 환경과 관련하여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이자 식생활, 환경, 생태를 주제로 아이들과 만나고 있는 프리랜서 강사로도 활동 중이다.

Q. 도시문화실험실 활동 중 가장 뜻깊었던 순간은?

A. 각자 다른 곳에서 열심히 환경을 위해 애쓰고 있는 시민연구원들을 만나 우리 주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 시간 토론했던 과정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특히 토론을 이끌어주는 퍼실리테이터가 있어 의견 수렴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었고 우리의 고민이 실현되는 즐거운 상상을 할 수 있었던 단계였기에 더욱 인상 깊은 경험이었다.

고옥자 시민연구원

Q. 자기소개

A. 장유2동에 거주하며 환경과 관련하여
강의도 하고 봉사활동 및 캠페인을 10년 넘게 해왔다.
기후 위기 시대에 분리배출을 잘하기 위한
공부를 하고자 참여했다.

Q. 도시문화실험실을 통해 내 삶에 변화된 점이 있다면?

A. 실험프로젝트를 통해 주민교육을 하고,
한달 간 주민들이 점점 올바른 분리배출을 하게 되는 것을
보며 보람을 많이 얻었고, 많은 것을 배우는 시간이었다.
이번 실험프로젝트를 통해 환경은 나부터 먼저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다.
이러한 의제에 대해 실험하고 해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준 김해문화도시센터에 감사를 전하고 싶다.

김태림 시민연구원

Q. 자기소개

A. 지역문화 활성에 관심이 많아 도시문화실험실 재활용팀
연구원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Q. 실제로 실험프로젝트를 진행해본 소감

A. 이번 프로젝트 전부터 환경 운동을 실천하고 있었지만
실험실 참여로 인해 분리배출에 대해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할 수 있었다. 장유 무계에 공동 분리배출장을 설치하고,
활용되는 과정을 지켜보니 뿌듯함이 느껴진다. 실험기간이
끝나더라도 자체적으로 지속해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김도숙 시민연구원

Q. 자기소개

A. 결혼하면서 고향인 부산에서 김해 장유로 왔고 지금은 성인이 된 자녀 3명을 키우며 김해사람이 다 된 것 같다(웃음). 그래서 김해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참여하게 되었다.

특히 '자연환경은 후손에게 빌려 쓰는 것'이라는 말을 듣고부터 환경을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줄 수 있는 노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고민하다 일상에서 가장 먼저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라는 생각이 들어 재활용 분리배출 실험실에 참여하게 되었다.

Q. 재활용실험실의 실험프로젝트를 통해 이루고 싶은 바람은?

A. 무계노인회관의 재활용 분리배출 거치대를 설치하면서 정책적으로 분명히 보완하고 수정해야 되는 부분을 명확히 알게 되었다. 주택단지에도 재활용 분리배출 거치대 설치 의무화 조례 제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주택에서도 아파트와 동일하게 재활용 분리배출 거치대를 설치하고 운영인력을 두며, 운영인력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일자리, 청소년 자원봉사 등을 활용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반드시 조례로 제정이 되었으면 한다.

이진순 시민연구원

Q. 자기소개

A. 작년에 도시문화실험실의 환경의제 시민연구원으로 활동했다. 숨은 인재들과 함께 지역의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은 마음에 올해 실험실에도 참여하게 되었다.

Q. 선택한 지역 의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A.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제대로 알지 못한 잘못된 지식으로 혼란을 주고 있는 현실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을 해보고 싶었다. 나 역사나 잘못알고 있는 지식을 배우면서 공부하고 싶었다. 많은 부분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바꿔진다면 세상은 변화가 생길 것이라 생각한다.

재활용 프로젝트 세부 사업계획서

Ⅰ 배경 및 필요성

< 김해시 재활용품 선별장 반입 및 재활용율>　　(출처 : 김해시청)

년도	반입량	재활용량	재활용률[2]
2019	16,963.86	13,300.69	78%
2020	17,977.34	13,298.49	74%
2021	18,686.73	12,767.59	68%

- 김해시의 분리배출 및 재활용율은 매년 줄어들고 있음. (최근 3년간 10% 감소)
- 소각되는 양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 (수거량 중 22-32%는 소각됨)
- **배출과정에서부터 제대로 배출되지 않고, 재활용될 수 있는 자원도 소각되고 있음.**

주택가에 방치된 쓰레기

하나의 봉투에 묶어 분리배출 중인 상황

사람들이 분리배출과 **재활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 나 하나 쯤이야 라는 이기적인 생각과 귀찮음
☑ 주택과 노후 빌라 거주자는 공동 분리수거장이 없어 개인이 알아서 해야 함
☑ 분리배출 매뉴얼이 너무 복잡하고 바뀌는 점이 많아 노인들은 따라하기 힘듦
☑ 아파트를 제외한 공간에는 분리배출의 감시 없음(단속이 복불복)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하여 **가장 어려움을 겪는 대상지를 선정**하여 올바른 방법으로 재활용을 배출하는 실험

→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편하고 올바르게 분리배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자

2) 반입량/재활용량을 백분율로 계산. 잔재물 제외

Ⅱ 사업의 목적 및 내용

(실험1) 주택 거주자들이 분리배출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김해시 내 분리배출에 어려움을 겪는 마을 선정
↓
무계, 칠산 현장 답사를 통한 마을 선정
↓
마을 내 공간에 **공동 분리배출 장소 마련 및 분리배출대 설치**

(실험2) 주택 거주자들이 분리배출을 올바르게 배출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주민 눈높이에 맞춘 교육 (그들의 어려움 맞춤) 기획 및 교육 교구 제작.
↓
마을주민 대상의 **분리배출 교육** 실시
↓
올바른 분리배출 참여 운영

(실험3) **실험이 실험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공동분리배출 장소의 효과성 및 행정 설득을 위한 **모니터링과 데이터 확보**
↓
김해시 자원순환과(환경과), 일자리정책과 등 담당자 미팅을 통한
공동 분리배출 장소 설치 및 운영 인력 확보 방안 논의
↓
설치 마을 확대 및 공공일자리 연계 공동 분리배출장소 확대 관리

Ⅲ 실험실 개요

일　　시 : 2022.09.-11.
장　　소 : 김해시 무계마을 일대
대　　상 : 김해시 무계마을 거주 주민 (주택거주자)
사업규모 : 3,000천원 내

주요 사업내용

① 마을 내 공동 분리배출 공간 운영

- 마을 공간에 공동 분리배출 장소 설치 (1곳)
- 공동 분리배출장소 이용 안내 게시

공동 분리배출장 설치 예시

② 마을 주민 분리배출 교육 운영

- 마을 이장님 + 노인회장님 등 대상으로 집중 교육 1회(외부강사)
- 마을 회관에서 주택거주 주민 대상 교육 1회 (외부강사)
- 주민맞춤형 교육과정 설계 및 교구 제작 (품목별 실물로 준비)
- 주민 참여 독려를 위해 소정의 상품 제공 (종량제 봉투)

③ 공동 분리배출장 설치에 따른 재활용품의 품목별 무게측정 모니터링

- 분리배출 장소 설치 후 품목별 무게 (그람수 측정 등) 측정
  (주 5회 지정된 시간에 측정하여 기록, 사진촬영하기)
- 주민대상 분리배출 설치 전/후 설문조사
  (교육 시 사전설문조사, 실험실 종료시점 사후 설문조사하여 비교)

Ⅳ 기대효과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분리배출을 편하고, 올바르게 할 수 있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분리배출 및 재활용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아이들만 받던 교육을 노인과 성인 대상의 분리배출, 재활용 교육을 통한 행동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문화시민으로서의 시민의식을 향상할 수 있다.

Ⅴ 향후 계획

실험의 유의미성을 기록하여 설득을 위한 자료로 활용
실험 이후 공동 배출장소가 없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주체(마을주민이면 가장 이상적)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 논의
- 노인공공일자리 연계 방안을 김해시에 제안 (환경과, 일자리정책과 면담)
- 지속적 인력 후원 및 기관 확보 방안 논의 (시의회 면담 등)

→ 주민이 자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이다.
→ 공동분리배출 이용 매뉴얼을 마을별로 정리하고 학습하도록 한다.
→ 마을별 특성 파악 및 지속적 교육이 필요하다.
→ 관리인력과 비닐 등 재료비 확보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

Ⅵ 추진 일정

구분	일정	세부내용
현장답사	8월 중	- 공동분리배출장 설치 마을 현장 답사 및 선정
▼		
사전 모니터링	9월 중	- 실험 전 마을 현황 모니터링 (분리배출현황, 주민인터뷰 등)
▼		
주민교육	10월 중	- 이장단(노인회 등) 교육 1회 - 주민 교육 1회
▼		
공동분리 배출장설치	10월 ~ 11월 중	- 분리배출장소 설치 - 운영 인력 배정 - 모니터링 운영 (분리배출현황, 주민인터뷰 등)
▼		
평가회의	11월 중	- 내부 데이터 및 인터뷰 내용 확인 - 실험 내부 평가
▼		
최종 결과보고	0. 00.(요일) 10:00~15:00 (장소)	- 실험 내용 공유 및 평가

Ⅶ 예산계획(안)

구분	세부사항		금액	비고
분리배출장 운영	거치대(100L)	2구×2개 / 3구×1개	269,000	
	2구 : 77,000원×2개=154,000원 / 3구×1개=115,000원			
	투명비닐	35,500원×2박스	71,000	
	종량제봉투 (50L)	2,400원×8매	19,200	
	분리배출 메뉴얼 게시	66,000원×7개=462,000원 설치비=100,000원	562,000	40*850
	프로젝트 설명 현수막	100,000원×2개	200,000	설치비포함
	운영인력	주 5회×2시간×4주×10,000원	400,000	
교육 및 포인트제	주민 선물	종량제봉투 400원×100매	40,000	
	주민 다과(교육 시)	30명×5,000원	150,000	
	이장단 교육 : 10명 / 주민교육 : 20명			
	교육 교구 제작	문구류 등 70,000원	70,000	
	외부 강사비	2회×1시간×80,000원	160,000	4급 기준
모니터링	쓰레기량 측정 저울	70,000원	70,000	
	식비 및 다과 등	15,000원×6명×7회	630,000	
	이장단, 주민교육 시 2회, 실험실 운영기간 주 1회씩 4회, 실험실 종료 시 1회			
합계			2,641,200	

길고양이
실험실

길고양이 문제로 인한 사람들의 갈등

[시민연구원] 김순덕, 김미숙, 이연일, 이혜진, 장행영, 최현우

[실험프로젝트 요약]

- 길고양이 인식개선을 위한 SNS 홍보자료 제작 및 게시
- 공공급식소 설치 및 운영
- 전후 환경 변화 측정 및 시민 반응 인터뷰
- 결과보고서 제작

도시문화실험실의 길고양이 실험실 시민연구원들은
11월 15일 김해 흥동에 자리한 카페 묘미에 모여
'길고양이 TNR(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중성화 사업) 이후 상태관리와 급식소 철거 일자 등을 논의했다.
이들 시민연구원은 실험을 통해 길고양이 인식 개선을 위한
SNS 홍보자료 제작과 공공급식소 설치 및 운영을 통한
전후 환경 변화 측정 등을 진행했다.
다음은 시민연구원들과의 일문일답.

가능
I DREAM
OF LIVING
描美묘미
OPEN

이혜진 시민연구원

Q. 자기소개

A. 그림과 글을 쓰는 작가이다.

Q. 도시문화실험실을 통해 내 삶에 변화된 점이 있다면?

A. 원래 나서는 걸 좋아하지 않지만,, 사람한테 들이대는 것은 좋아한다.(웃음) 이런 사안에 나서는 것이 지금도 조금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직접 해보니까 사회를 위해 뭔가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좋았다.

김순덕 시민연구원

Q. 자기소개

A. 고양이를 너무나 사랑한다.

Q. 도시문화실험실 활동 중 가장 뜻깊었던 순간은?

A. 카메 '묘미'에서 만난 길고양이 중 한 아이가 아픈 몸인데도 급식소까지 와서 밥주는 사람을 주인으로 따르는 장면이 가장 뜻깊었던 순간이다. 세상 모든 길고양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김미숙 시민연구원

Q. 자기소개

A. '수양일기'의 저자이다. 필명으로는 연하 작가로 불린다.

Q. 길고양이실험실의 실험프로젝트를 통해 이루고 싶은 바람이 있다면?

A. 처음에는 실험실이라는 말 때문에 부담감이 컸다. 실제로 길고양이를 대할 때, 그냥 한 생명으로 바라봐주면 되는데 대부분 그러한 인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작지만 인식 개선을 통해 우리 고양이들한테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되었으면 한다. 또한 프로젝트를 통해 고양이를 조금 더 친근감 있게 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작용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연일 시민연구원

Q. 자기소개

A. 67세이고 글 쓰는 작가이다.

Q. 도시문화실험실의 시민연구원으로 길고양이실험실에 참여한 소감

A. 딸 아이 권유로 참여하게 되었다. 옛날에는 고양이에 대한 단편적인 생각으로 밥만 주면 된다, 사료만 주면 되는 줄 알았다. 하지만 실험실을 통해 중성화 수술 사업인 TNR도 알게 되었고 고양이를 보호할 수 있는 길, 방법을 많이 알게 되어 좋았다.

최현우 시민연구원

Q. 자기소개

A. 고양이를 좋아하는 청년이다.

Q. 이렇게 실제로 실험프로젝트를 진행해보니 어떠한가?

A. 실험실을 통해 진행하면서 솔직히 김해시와 공공급식소 설치와 관련해 협의를 진행할 때 될까, 안될까 불안했었다. 하지만 행정에서 시민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실험프로젝트가 추진되는 것을 보고 좋았다.

장행영 시민연구원

Q. 자기소개

A. 길고양이 보호단체를 이끌고 있으며 비영리법인 김해동네고양이협회 대표로 일하고 있다.
협회는 길고양이 인식개선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다.

Q. 길고양이실험실의 실험프로젝트가 김해에 어떤 영향을 퍼트리고 싶은지?

A. 관공서에 급식소가 설치되고 시민들 반응 촬영, 인터뷰 진행 등 좋은 결과가 있었다.
내년에는 김해시 관공서 내 공공급식소가 모두 설치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길고양이 프로젝트 세부 사업계획서

Ⅰ 배경 및 필요성

길고양이로 인해 발생 되는 사람들과의 갈등

길고양이로 인한 사람들의 갈등은 언제 일어나나요?

☑ 길고양이 혐오 VS 극호 그룹과의 갈등

☑ 길고양이에 대한 학대, 살해 사건으로 인한 갈등

☑ 길고양이에게 급여 환경은 관리 안하는 캣돌보미로 인한 갈등

길고양이 문제를 위한 김해시의 노력은 무엇이 있나요?

- 길고양이에 대상 중성화 사업 (TNR) 추진 (5년째)
- 길고양이 확대 방지 현수막, 안내문 제작 배포
- 유기동물보호사업 위탁 (민간 위탁)
- 동물보호명예 감시원 위촉만
- 김해동네고양이협회에서 13개 급식소 설치 관리 (민간)
- 로드킬, 자연사 길고양이에 대한 무료 화장터 이용 (민간)

길고양이로 인한 사람들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 길고양이에 대한 편견을 바로잡기 위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 캣맘에 대한 이유 없는 혐오를 줄여야 한다. (캣돌보미 용어 사용, 돌보미에티켓 등)

→ 길고양이에 대한 시민 교류 및 만남 기회를 자주 가지고 서로의 의견을 공유한다

→ 길고양이가 쓰레기를 뒤지며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안을 강구한다

→ 길고양이 개체수가 무분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 김해시 동물복지조례를 점검하고 동물복지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한다.

Ⅱ 사업의 목적 및 내용

(실험1) 고양이를 무턱대고 혐오하거나 편견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양이에 대한 잘못된 인식, 오해, 편견, 가짜뉴스 확인
↓
이를 바로 잡기 위한 바른 정보 확인
↓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정보전달

(실험2) 길고양이와 시민들이 공존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공존을 위한 공공급식소 설치 공간 확보
↓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설치
↓
급식소 설치, 주민 반응 조사, 관련 영상 제작

(실험3) 길고양이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나눠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제작된 컨텐츠 SNS 게시
↓
길고양이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확인
↓
시민 의견을 수렴, **결과집 제작**

Ⅲ 실험실 개요

사 업 명 : 단풍나비야
일　　시 : 2022.09.~11.
장　　소 : 김해시 일대
대　　상 : 김해 시민
사업규모 : 4,700천원

주요 사업내용

① 길고양이 인식개선을 위한 SNS 홍보자료 제작

1) 관련된 카드뉴스 12개 제작
 - 3주에 4개의 주제, 카드뉴스 공개 계획

② 공공급식소 설치 및 운영을 통한 전후 환경 변화 측정 및 시민 반응 인터뷰

1) 장소 선정
 - 김해시와 협의하여 가능하면 공공기관에 공공급식소 설치
 - CCTV가 있는 장소여야 하기 때문.
 - 타 시도(관악구)의 사례를 들어 협조 요청.
 (김해시 협의가 불가할 경우, 김해 문화 재단 산하 공공기간에 협조 요청.)
 (위에가 불가할 경우, 김해동네고양이협회 급식소 주변 촬영으로 대체)
2) 설치 전 시민을 대상으로 길고양이에 대한 인식확인 인터뷰 영상 촬영
3) 공공급식소(고양이 발자국) 구입 및 설치
4) 운영
 - 운영인력 배치(연구원 자원 봉사), 매일 급여하면서 길고양이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기록
5) 운영 중 TNR 영상 촬영
 - TNR 영상 : 김해시 TNR 남은 분량을 공공급식소에 적용해줄 것 요청하
 (협조 불가할 경우, 김해동네고양이협회 정회원 혜택 TNR실시)
6) TNR 후, 시민 인터뷰 영상 촬영
 - 공공급식소 주변 환경, 길고양이 관련 변화한 점 확인 인터뷰
7) 종료 : 철거
 - 11월 셋째 주 철거 예정

③ 길고양이 관련 컨텐츠 SNS 게시

1) 실험실에서 제작한 컨텐츠 : 12장의 카드뉴스

1. 길고양이란
2. 길고양이는 구조해야 할까요?
3. 길고양이는 왜 시끄럽게 울어요?
4. 밥 주는 곳 때문에 길고양이가 늘어나요.
5. 길고양이가 사람을 공격하지 하지요?
6. 길고양이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나요?
7. 길고양이가 전염병을 옮기나요?
8. 길고양이를 아껴다면 집에 데리고 가서 기르시죠?
9. 길고양이 밥 못 주게 해주세요.
10. 길고양이 없어도 되죠? ㅣ
1. 길고양이 똥 때문에 못살겠다.
12. 공원에 길고양이 용품을 갖다놨어요. 치워주세요.

 - 공공급식소 관련 영상 (설치전 ~ 사업종료 후 시민 인터뷰 영상)
2) 운영할 채널
 - 김해도시문화센터 유튜브
 - 공감발전소 유튜브
 - 김해동네고양이협회 유튜브
 - 연구원 개인 SNS 채널을 통해 영상 공유 및 확산

④ 결과보고서 제작

1) 카드 뉴스나 공공급식소 영상에 달린 댓글을 모아, 결과집 제작.
2) 실험실 활동 사진 포함.

Ⅳ 기대효과

김고양이에 대한 근거 없는 혐오와 편견을 줄이고 이를 통한 갈등을 완화한다.
김고양이 공공급식소 설치를 통한 가능성을 확인한다.
SNS을 통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생각을 수렴하고 공존할 방법을 함께 모색한다.
문화시민으로서의 시민의식을 향상할 수 있다.

Ⅴ 향후 계획

김해시 동물복지조례 개정 및 동물복지위원회 정상 운영 요청
실험 이후 김고양이 공공급식소 설치효과 논의 및 시제안
- 공공급식소 정식 설치와 관련된 논의 (김해시 동물복지팀)

Ⅵ 추진 일정

구분	일정	세부내용
현장답사	9월 말 중	- 공공급식소 설치 현장 답사 및 선정
▼		
카드뉴스 제작	9월~10월 중	- 김고양이 관련 카드뉴스 제작
▼		
공공급식소 설치 및 영상 촬영	10월 중	- 공공급식소 곳 설치 (3곳) - 지속적 관리 및 운영 - 시민 반응 인터뷰 등
▼		
온라인 게시	11월 중	- 제작 컨텐츠 카드뉴스 - 급식소 영상 게시 - 온라인을 통한 시민의견 수렴
▼		
평가회의	11월 중	- 실험 내부 평가
▼		
결과보고	12월 중 (미정)	- 실험 내용 공유 및 평가

Ⅶ 예산계획(안)

구분	세부사항		금액	비고
온라인 숏폼 컨텐츠 제작	카드뉴스 제작	55,000원×12장	660,000	
	공공급식소 촬영비	330,000원×5개	1,650,000	스탭 3명
	공공급식소 영상 편집	330,000원	330,000	
공공급식소 설치	공공급식소 구입	141,900원×3개	425,700	
	칼라 안내문	20,000원×3개	60,000	
	스탠 그릇(2개 입)	6,000원×3개	18,000	
	캐츠맘 사료 20kg	53,500원×8개	428,000	
실험실 운영비	회의 식사 및 다과비	15,000원×6명×9회	810,000	
	결과보고서 제작	20,000원×20권	400,000	
합계			**4,781,700**	

횡단보도
실험실

횡단보도에서 겪는 위험과 불편

[시민연구원] 박진근, 백미늠, 차영례, 허모영

[실험프로젝트 요약]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사고예방을 위한 최선의 신호체계 확인
- 집중시간대 교통안전 도우미 배치

1단계	2단계	3단계
자료조사	현 상황에 대한 사용자 의견 수렴	실험에 따른 현장 투표 및 인터뷰

도시문화실험실의 횡단보도실험실 시민연구원들은 11월 23일 김해문화의전당 도시문화센터에서 평가회의를 가졌다.

앞서 횡단보도 실험실 시민연구원들은 워크숍을 통해 김해시 관내 보행자 사고다발지역과 사고유형, 사고시간 등의 데이터를 함께 검토 및 분석했으며, 최근 3년 이내 사고가 많이 발생한 곳,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 4차선 도로이면서 횡단보도 보행 신호체계가 미비한 곳으로 '내외동 행정복지센터 사거리'를 실험지로 선정해 실험프로젝트 계획서를 작성했다.

이날은 평가회의에 이어 도시문화실험실 활동에 대한 전체적인 소감 등을 밝히는 인터뷰를 가졌다.

다음은 시민연구원들과의 일문일답.

백미늠

Q. 자기소개

A. 지역주민들과 진영사랑을 실천하며 시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Q. 횡단보도실험실의 시민연구원으로 활동하며 변화된 자세

A. 시민연구원으로 활동하며 무단횡단하는 습관과 위험한 도보태도를 고치게 되었다.

Q. 선택한 지역 의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A. 자가용을 주로 이용하다 보니 횡단보도에 대해서는 무심했던 것 같다. 문제점이 별로 없다고 여겼는데 횡단보도 실험실을 통해 눈여겨보게 되었고 많은 문제점도 파악할 수 있었다.

박진근

Q. 자기소개

A. 장애인 활동지원사 및 농촌 교육농장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평소 장애인들의 활동을 돕기도 하고 자전거로 라이딩을 즐기다 보니 전반적인 인도통행에 대하여 불편한 점을 많이 느낄 수 있었다. 이러한 불편들을 개선하기 위해 실험실에 참여하게 되었다.

Q. 횡단보도실험실에 참여한 소감

A. 단순히 내가 겪어왔던 불편함에 더해 시민연구원이 다양하게 느꼈던 불편함도 알게 되었다.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와 개선 방향을 논의할 수 있어 좋았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횡단보도에 대한 데이터와 학문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정책적으로 활용이 되고 발전하게 되어 왔는지에 대해 살펴볼 수 있었던 점이 제일 크게 와닿았던 것 같다.

Q. 의제를 고민하며 느낀 점

A.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로서 느꼈던 점을 서로 공유하면서 보행자와 차량 운행자로서의 관점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실험실 참여 후 차량을 운행하거나 보행을 하면서 평소보다 더욱 횡단보도를 살펴보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그냥 지나치던 횡단보도 주변의 시설환경과 이용환경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아울러 참여자분들의 의견을 모아 어렵게 계획되었던 실험의 실행이 시작되기 전에 개인적인 일로 무산이 되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러한 자리가 또 주어진다면 보다 나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허모영

Q. 자기소개

A. 김해문화원에서 20대부터 40대 후반까지 나름의 열정을 쏟아왔으며, 지금은 김해민속예술보존회와 경상남도무형문화재 37호 김해오광대보존회 사무국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더불어 김해수필협회 회장으로 문학 활동을 하고 있으며, 동아대학교 사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지역사를 함께 공부하고 있다.

Q. 도시문화실험실의 시민연구원으로 횡단보도실험실에 참여한 소감

A. 시민연구원으로서 충분한 연구와 실험을 통해 결과를 만들고 실행이 이루어져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죄송하고 아쉽다. 보행자와 운전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다닐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암묵적 약속이 횡단보도라고 생각한다. 서로 교통질서를 지키고 안전을 위해 세심한 배려를 하면서 불편 없고 사고 없는 거리 질서가 만들어지길 바란다. 나부터 먼저 보행자의 안전배려가 몸에 밸 수 있도록 실천하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한다.

Q. 도시문화실험실을 통해 내 삶에 변화된 점이 있다면?

A. 이번 도시문화실험실에 참여하면서 횡단보도를 유심히 살피게 되었고, 가급적 걸어가면서 이용자들의 편의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운전할 때 횡단보도 뿐만 아니라, 주변을 좀 더 살피며 나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에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된 점이다.

차영례

Q. 자기소개

A. (양)성평등과 폭력예방강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공익공감 사회적협동조합의 이사를 맡고 있다.

Q. 도시문화실험실의 시민연구원으로 횡단보도 실험실에 참여한 소감은?

A. 횡단보도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조치임에도 생각만큼 안전하지 못한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황단을 위한 연구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교통사고와 횡단보도 종류 등 면밀한 조사를 통해 의제를 해결하려 한 연구원님들의 열정과 수고에 감사를 전하고 싶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사고예방을 위한 실험 계획(안)

Ⅰ 실험의 목적

김해문화도시센터 도시문화실험실 「문제발굴 워크숍」으로부터 아래 문제를 전달받아 4인의 시민연구원 실험실이 구성됨

> § **횡단보도에서 겪는 위험과 불편**
> 인도와 횡단보도가 만나는 곳에 불법주차 차량, 갑자기 튀어나오는 오토바이, 시야를 가리는 간판과 파손된 보도블럭으로 인해 보행자(장애인 및 비장애인 모두)들이 도로로 내려가 위험에 노출되면서 사고가 발생한다.

⇒ 다양한 상황과 문제들이 혼재되어 있어서 문제를 정의하는 것에서 어려움을 가짐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http://taas.koroad.or.kr) 홈페이지를 통해 김해시 관내 보행자 사고 다발지역, 사고유형, 사고시간 등의 데이터를 함께 검토, 분석하였으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 **<내외동 행정복지센터 사거리>**를 실험지로 선정하게 됨

선정이유	1. (최근 3년 이내) 사고가 많이 발생한 곳
	2.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
	3. 4차선 도로이면서 횡단보도 보행 신호체계가 미비한 곳

[그림] 내외동 행정복지센터 사거리 교통안전지도 (출처 :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실제로 2021년 서울시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한 해 교통사고로 사망한 보행자 115명 중 52%인 60명이 노인이었으며, 노인 보행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은 전통시장인 것으로 나타남.
⇒ 실험지 역시 시장과 인접해 있고, 사고 발생시간이 오후 5시경에 밀집해있다는 점에서 시장을 이용하는 노인/여성의 보행사고와 연관이 높을 것이라 판단함

또한 2021년 9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빈발하게 일어남에 따라 보행자가 횡단보도 끝에만 서도 운전자가 차를 멈추게 하는 등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추진되고 있음

실험과정에서 해당 지역이 보행사고가 많이 일어난 지점임에도 불구하고, 보행등(보행자용 신호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배경을 찾고,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신호체계를 알아보고자 함

Ⅱ 실험의 내용

실 험 명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사고예방을 위한 최선의 신호체계 확인
일 시 : 2022년 10월 ~ 12월 초
실험규모 : 4,000원권
실험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

① 왜 보행 신호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가? (실태파악)
② 보행 신호체계를 마련한다면 사고가 예방될 수 있을까? (가설검증)
③ 만약 신호체계를 마련한다면 어떤 방식이 최선일까? (대안탐색)

실험 확인의 방법

① **왜** 보행 신호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가?
⇒ [자료조사] 보행등 설치요건 확인, 관할 경찰서에 미설치 배경 확인

② 보행 신호체계를 **마련한다면** 사고가 예방될 수 있을까?
⇒ [투표/인터뷰] 신호가 없는 현재 상황에 대한 사용자 의견

③ 만약 신호체계를 마련한다면 **어떤 방식**이 최선일까?
⇒ [실 험] 집중시간대 교통안전 도우미 배치
[인터뷰] 사용자 대상 현장투표 및 인터뷰 진행

※ 투표와 인터뷰는 동행하는 시민, 인근 상인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임

현장투표 및 인터뷰 질문구성 (추후 수정하여 활용예정)

현장투표	실험 전	① 해당지역은 신호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② 필요하다면 어떤 방식이 적절한가요? (A/B/C)
	실험 후	① 신호체계로 인해 안전감을 느끼셨나요? (Y/N) ② 신호체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셨나요? (Y/N)
인터뷰		- 사고를 목격한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사고인가요? - 평소 횡단 보행 시, 위험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나요? - 해당 지역은 신호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필요하다면 어떤 방식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Ⅲ 기대효과

해당 지역은 평소 보행자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역이므로, 본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주민들에게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 분위기를 조성하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음

주민들이 직접 교통안전 도우미와 인터뷰 진행자로 참여함으로써 우리 동네의 문제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며, 문제해결에 참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횡단보도 이용자뿐만 아니라 인근 시장, 상가 상인들의 의견을 함께 수렴함으로써 중립적이면서 가장 최선이 되는 대안을 발견할 수 있게 됨

향후 행정에서 보행자 보호를 위한 신호체계를 마련하는 데에 본 실험의 결과물이 유의미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Ⅳ 추진 일정

구분	일정	세부내용
실험준비	- 9월 말까지	□ 내외동 행정복지센터 동장님과 사전미팅 - 실험의 취지 및 내용 공유 - 시민참여단 모집 협조 □ 중부경찰서와 협력체계 구축 - 실험의 취지 및 내용 공유 - 교통안전 도우미 활동 사전교육 요청 □ 시민참여단 모집을 위한 준비 - 현수막, 웹포스터 제작 - 인터뷰 참가자용 기념품 준비
▼		
자료수집	10월 초	- 보행등 설치요건 확인, 관할 경찰서에 실험지역 보행등 미설치 배경 확인
▼		
실험설계	10월 초	□ 시민참여단 모집 □ 시민참여단 대상 교통안전 교육 시행 □ 현장투표-인터뷰 질문설계, 의견수렴판 제작
▼		
실험실행	10월 중	- 장소 : 내외동 행정복지센터 사거리 (보행등 미설치된 횡단보도 2곳) - 일정 : 월/화/수 16:00-18:30 (2주, 총 6일) - 목표 : (투표) 300명 / (인터뷰) 50명
▼		
자료정리 및 분석	11월 초	- 자료정리 및 효과성 분석 - 공유회 자료로 정리
▼		
실험결과 공유회	11월 중순	- 대상 : 내외동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동장님, 중부경찰서, 시민참여단, 시민연구원 등 - 인원 : 20명 내외 - 내용 : 실험결과 공유 및 의견수렴
▼		
최종 결과보고	날짜 미정	- 일시 및 장소 : 미정 - 내용 : 실험결 결과공유 및 평가

Ⅴ 예산계획(안)

구분	세부사항		금액	비고
인건비	단순 인력비	10,000원×5명×6일×3시간	900,000	
	교통안전교육 강사비	1식	200,000	
	효과성 분석 보고서 작성	1식	1,000,000	
	소계		**2,100,000**	
운영비	현수막 제작(모집/결과)	60,000원×4개	240,000	
	웹포스터 제작	150,000원×1식	150,000	
	보고서 제작(리플릿 포함)	30,000원×30부	900,000	
	물품구입비 (볼펜, A4용지, 풀더 등)	300,000원×1회	300,000	
	모니터링단 안전용품(조끼)	20,000원×7개	140,000	
	인터뷰 기념품	6,000원×50개	300,000	
	간담회 다과비	5,000원×25명×2회	250,000	
	시민연구원 식비/다과비	10,000원×6명×8회	480,000	
	소계		**2,750,000**	
합계			**4,850,000**	

2022 도시문화실험실을 마무리하며

2022 도시문화실험실 PM 한마디

도시문화실험실, 시민의 도시를 꿈꾼다

이한준 (도시문화실험실 PM)

도시문화실험실은 올해로 3년째 진행되고 있는 김해문화도시의 대표적인 사업 중 하나이다. '실험실'이라는 이름처럼 사업 자체가 실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매년 그 형태와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2020년 첫 번째 도시문화실험실은 '시민 기획 실험실'의 성격으로, 시민들이 해보고 싶었던 일을 마음껏 기획하고 실행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형태였다. 2021년에는 기존의 '시민 기획 실험실' 형태와 함께 '시민들이 발굴한 도시의 문제를 문화적으로 해결'하는 리빙랩 형태의 실험실을 운영하였다. 시민들에게 자유로운 기획의 기회를 제공하는 다른 사업과의 차별성을 확보하면서,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시민력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2022년 도시문화실험실은 리빙랩 형태를 기본으로, 3가지 유형의 실험실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다.

주민자치형 실험실은 주민자치회를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제안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리빙랩 방식을 적용하는 실험실이다. 주민들의 절실한 필요를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숙의의 과정을 통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주민참여예산제도와 도시문화실험실을 연계하는 시도이다. 올해 도시문화실험실에는 진례면과 불암동 주민자치회가 참여하였다.

시민의제발굴형 실험실은 시민의 절실한 필요를 바탕으로 도시 문제를 발굴하고, 문화적인 해결방안을 찾아내는 리빙랩 실험실이다. 수차례의 워크숍을 통해 의제들을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연구원들을 모집하여 5개의 실험실을 운영하였다.

행정협치형 실험실은 행정에서 의제를 요청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리빙랩 실험실을 운영하는 형태이다. 도시문화실험실이 시민들끼리 무엇인가를 해보는 사업, 행사 차원이 아니라 시민과 행정히 함께 도시의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는 협치의 방식으로 확장되기를 바라는 시도이다. 자치경찰위원회의 제안을 받아 김해중부경찰서와 시민연구원이 여성안심귀갓길에 대한 실험실을 운영하였다.

시민이 중심이 되어 도시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문화도시의 취지는 시민이 주체가 되어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민 참여적 사회혁신 방법론인 리빙랩과 일맥상통한다. 도시의 주체인 시민의 참여를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점 또한 같다. 그리고 시민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정말 어렵다는 점에서도...

그동안 경남과 김해에서 다양한 시민 참여 정책을 경험하면서 느낀 점은 '시민 참여'에 대한 어떤 오해가 있다는 것이다.

시민 참여는 행정이 하는 일에 시민을 '끼워' 주거나, 시민들로부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다. 시민 참여는 '시민 권한', '시민 권력', '주민 자치'에 대한 것으로, 시민에게 결정권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선거할 때만이 아니라 도시의 일상적인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도 '시민이 주권자'라는 주민 자치의 개념이 전제되지 않으면 시민 참여는 흉내내기에 불과하다.

많은 경우, 시민 참여는 시민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정도에 그치거나, 이미 결정된 일의 실행과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오해된다.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시민들의 참여가 온전히 보장되지도 않고, 제대로 된 숙의 과정을 위한 시간과 지원도 없으며, 시민들이 내린 결론은 '단지 참고용'일 뿐인 경우가 허다하다. 결국 시민들은 '동원'되었다고 느끼게 되고, 실행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대부분 '용역'에 해당하는 것들이기에 용역 참여에 대한 댓가로 수당 내지는 활동비를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시민들이 이런 경험을 몇차례 하고 나면 '시민 참여'는 그냥 소소한 활동비를 받을 수 있는 '일꺼리' 정도로 인식하게 된다.

시민력, 시민 역량 강화 이라는 이름으로 기획서 작성법, 회계 정산하는 법, 디자인 잘 하는 법, 사진 잘 찍는 법 등 다양한 업무 역량을 교육하거나, 시민들에게 단체나 법인을 설립해서 고유번

호증,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게 하는 등 일꺼리 창출사업이라고 불러야 할 것 같은 상황을 자주 보게 되는 것도 '시민 참여에 대한 오해' 때문이다.

시민력은 시민의 힘, 시민 주권을 가능하게 하는 힘을 말한다. 주인 의식, 공동체 의식, 토론과 숙의를 위한 민주주의 역량,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는 문화다양성 역량 등이 우리가 갖추어야 할 시민력인 것이다. 이는 단순히 몇차시 교육과정을 수료하면 갖춰지는 것이 개인적인 성취가 아니라 시민 참여의 경험을 통해, 작은 성공의 경험을 통해 조금씩 성장하게 되는 그 사회의 문화적 수준을 일컫는 것이다.

문화도시를 통해, 도시문화실험실을 통해 몇 개의 사업을 운영했고, 어떤 가시적인 성과물을 만들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력이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사업 예산, 프로그램의 수, 경제적 효과 같은 것에 현혹되어서는 안된다. 중요한 것은 사람, 시민력, 우리 사회의 문화적 성취이지 않는가

내년의 도시문화실험실은 또 달라질 것이다. 아니, 달라져야 한다.

더 많은 영역에서 시민의 권력이 작동할 수 있도록 그 적용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시민 참여 정책'이라고 규정된 몇몇 사업, 분야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부서, 사업과 연계하여 도시 경영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적용 범위의 확대 뿐만 아니라 참여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시민 동원, 단순 의견 접수, 시민 용역의 형태를 벗어나서 실제적인 시민 권력의 실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다양한 시민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충분한 숙의의 시간과 방법을 제공하고 '작은 성공의 경험'이 축적될 수 있도록 사업의 틀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왕의 도시를 넘어 시민의 도시로'. 문화도시를 통해 이뤄지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꿈이다. 3년 전 김해가 문화도시를 준비하면서 함께 만들었던 이 꿈이 내년에는 조금 더 가까워지기를 바래본다. 마침 김해시의 슬로건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로 바뀌었으니 말이다.

2022 도시문화실험실을 마무리하며

2022 도시문화실험실 담당자 한마디

함께 달려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예은 (도시문화실험실 담당자)

결과자료집을 제작하며 2022년 도시문화실험실의 뜨거웠던 현장들이 떠올랐습니다.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민연구원님들께서 고민하고, 시도하고, 행동했던 시간들…….

담당자로 함께 달려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해 정말 숨 가쁘게 달려왔는데요.

되돌아보니 중간에 투입되어 허겁지겁 사업을 파악하고, 꾸려 간다고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했지만 한분한분 시민연구원님들께 신경을 써드리지 못한 것 같네요.

설계부터 도시문화실험실과 함께했더라면 더 좋은 담당자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준PM님 그리고 시민연구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이렇게 멋지게 도시문화실험실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담당자로 오롯이 혼자 마무리를 해본 첫 사업이 도시문화실험실이라 참 다행입니다.

내년도에 제가 도시문화실험실을 또 한 번 맡게 된다면, 열심히 고민해 더 나은 사업, 더 나은 담당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연구원님들께 2022 도시문화실험실 사업의 종료를 알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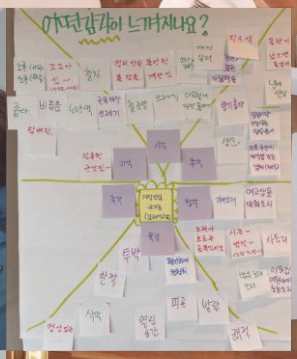
따뜻한 봄, 첫 시작부터 - 추운 겨울, 마무리까지 함께 달려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성안심
귀갓길

같이 꾸는 것은 시작! 함께 있는 것은 왈천!
같이 일하는 것은 성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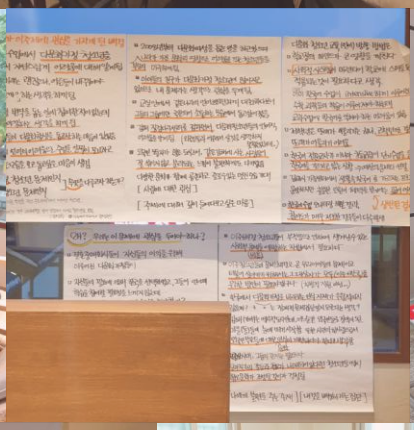
너나들길 '너랑나랑 안심하고 드나드는길'


어떤 감각이 느껴지나요?

외부인
접근금지

2022
도시문화 실험실
재활용으로 이어지지 않는
전기 백화점
재활용 실험실의 진짜 문제를 찾아서
바라는모습 (To-Be)
현재 우리의 문제상황 (As-Is)
우리는 '누구'의 '어떤' 문제에 집중하고 싶나요?
누구의?
어떤 문제?
문제의 원인
다문화 청소년이 경험한 차별 경험의
의미와 주제 논문을 읽고
(개인) 자존감이 큰 영향을 미칠수 있다.
부모의 무관심이 큰영향을끼침
바꿀수 없는 것에 차별이 가해짐
"다문화로 구분되는 교육은 참여하기 싫다"
잘 어울려서 놀수있는 환경조성
정체성을 확립할수 있는 수업이 필요
문화다양성 교육을 접하는 기회마련
교육의 경우 지속적으로 운영·노출필요

BEFORE
고객여정
입국
행동
보고 듣기
생각
감정
기회
장제적 개선
소감
어떻게 하면 학습의 지를 높일수 있을까?
도심문화
질험설
2022
갈 곳 없는 청소년들과
그들을 알인 불편한 시선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진짜 문제?
아파트
MT
공감지도
듣는것
보는것
말과 행동
어려움
필요 기대
I DREAM OF LIVING TOGETHER
종이



2022
도시문화
실험실
중간 공유회

"청유청소년
실험실

청유청소년
실험실

1/60
F5.0
+1.0
ISO320

2022
도시문화실험실 결과 공유회
일시 2022.12.15(목) 18:00 ~ 20:30
장소 리페스타뷔페 비너스홀 [김해 유앤락 6층]
참석자 2022 도시문화실험실 시민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부
경상남도
김 해 시
김해문화재단
문화도시김해

“문화를 만들어가는 주체인
<시민>을 통해 도시는 성장한다.”

시민연구원님들 덕분에 김해는
오늘도 문화로 특별한 도시가 되기 위해
오래된 미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역과 시민의 참여를 통해 지속되는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도시문화실험실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됩니다.
내년도 도시문화실험실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3 도시문화실험실 COMING SOON.

2022 도시문화실험실 결과자료집

발 행 일 2022년 12월
발 행 인 김해문화재단 대표이사 손경년
발 행 처 김해문화도시센터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060 김해문화의전당 m층
기 획 김해문화도시센터 센터장 이영준
진 행 시민문화파트 진예은
도시문화실험실 PM 이한준
홈페이지 문화도시김해.kr
문 의 055-339-2042
제 작 디자인니즈(www.designneeds.kr)

* 본 자료집의 모든 권리는 김해문화도시센터에 있으며 본 센터의 서면 동의 없이는 무단 복제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22
도시문화실험실
결과자료집

GIMHAE CULTURE CITY 문화도시김해

문화체육관광부 경상남도 GYEONGNAM 김해 김해문화재단 Gimhae Cultural Foundation GIMHAE CULTURE CITY 문화도시김해